

재위기간(1455~1468)

世祖

[세조실록 총서 권1]

○ 9월에 세종(世宗)이 <양주> 풍양(豐壤)에서 강무(講武)하는데, 세조(世祖)가 언덕을 내려 오다 말이 언덕아래로 넘어졌으나 무사히 빠져나옴.

[세조실록 총서 권1]

○ 경신년(庚申年) 10월 세조(世祖) 등이 <양주> 보현봉(普賢峰)에 올라 해지는 곳을 살피고 <양성> 백운곡(白雲谷)으로 내려옴.

[세조실록 권1, 세조 1年 윤 6月 12日(병진)]

○ 각도로 하여금 매와 개를 바치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1, 세조 1年 윤 6月 12日(병진)]

○ 경기관찰사에게 유시하여 삭녕수령(朔寧守令)으로 하여금 금성대군(錦城大君) 이유(李瑜)를 후히 대할 것을 당부함.

[세조실록 권1, 세조 1年 윤 6月 13日(정사)]

○ 개성부유수(開城府留守) 김연지(金連枝)가 경력(經歷) 김종순(金從舜)을, 경기관찰사 안송효(安崇孝)가 수원부사(水原府使) 조계팽(趙季枿)을 보내 임금의 즉위를 하례함.

[세조실록 권1, 세조 1年 윤 6月 15日(기미)]

○ 의정부(議政府)에서 예조(禮曹)의 정문(呈文)에 의거하여 상왕(上王)의 탄일과 정조(正朝)·동지(冬至)에는 여러 도에서 올리는 전문(箋文)과 방물(方物)을 면제하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1, 세조 1年 윤 6月 16日(경신)]

○ 의금부(義禁府)에 전지하여 이진(李璲)을 안성(安城)에, 정종(鄭宗)을 양근(楊根)으로 이배하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1, 세조 1年 윤 6月 19日(계해)]

○ 의금부(義禁府)에 전지하여 이유(李瑜)를 광주(廣州)로 이배하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1, 세조 1年 윤 6月 19日(계해)]

○ 경기·충청도 관찰사(觀察使)에 유시하여 도내의 광주(廣州)에 부처된 이유(李瑜), 안성(安城)의 이진(李璲) 등에게 노비와 식량만 매일 지급하고 주육(酒肉)과 반찬거리는 지급하지 말게 함.

[세조실록 권1, 세조 1年 윤 6月 20日(갑자)]

○ 경기 통진현인(通津縣人) 봉산(奉山)의 처(妻)가 벼락 맞아 죽자 해괴제(解怪祭)를 지내게 함.

[세조실록 권1, 세조 1年 윤 6月 24日(무진)]

○ 임금이 서교(西郊)에서 농사짓는 것을 관람함.

[세조실록 권1, 세조 1年 윤 6月 28日(임신)]

○ 민건(閔騫)을 경기관찰사로 임명함.

[세조실록 권1, 세조 1年 7月 5日(무인)]

○ 상궁(尙宮) 박씨 소유의 인천(仁川) 전지(田地)를 연창위(延昌尉) 안맹담(安孟聃)에게 하사함.

[세조실록 권1, 세조 1年 7月 8日(신사)]

○ 선위사(宣慰使)로 우의정(右議政) 이사철(李思哲)과 병조판서(兵曹判書) 이계전(李季甸)을 <고양> 벽제역(碧蹄驛)으로, 판중추원사(判中樞院事) 이맹진(李孟珍)을 개성부(開城府)로 보냄.

[세조실록 권1, 세조 1年 7月 9日(임오)]

○ 영접도감(迎接都監)에서 고보(高黼) 등을 <양주> 홍제원(洪濟院)에서 전별함.

[세조실록 권1, 세조 1年 7月 9日(임오)]

○ 도승지(都承旨) 신숙주(申叔舟)를 <고양> 벽제역(碧蹄驛)에 보내 고보(高黼)에게 궁시(弓矢) 등을 하사함.

[세조실록 권1, 세조 1年 7月 14日(정해)]

○ 경기관찰사에 유시하여 안성(安城)에 부처한 이진(李璲)에게 처(妻)와 같이 살게 하고, 공급하는 노비의 수를 이미 내린 유서에 의해 시행토록 함.

[세조실록 권1, 세조 1年 7月 20日(계사)]

○ 근정전(勤政殿)에서 윤씨를 왕비로 책봉하자 각도에서 전문(箋文)을 올려 하례함.

[세조실록 권1, 세조 1年 7月 24日(정유)]

○ 의정부(議政府)에서 호조(戶曹)의 정문(呈文)에 의거하여 각도 관찰사(觀察使)로 하여금

예상되는 실농에 구황책을 세워 대비하기를 청하는 사목을 올림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8月 7日(경술)]

○ 8도 관찰사(觀察使) 및 개성부유수(開城府留守)에게 유시하여 수령(守令)들이 양로법(養老法)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함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8月 12日(을묘)]

○ 의금부(義禁府)에 명하여 정종(鄭宗)을 수원(水原)으로 이배함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8月 12日(을묘)]

○ 광주목사(廣州牧使)에게 치서하여 외부인이 이유(李瑜)의 처소에 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8月 13日(병진)]

○ 경기관찰사에게 유시하여 정종(鄭宗)과 경혜공주(敬惠公主)에게 매일 식량 등을 주도록 유시함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8月 18日(신유)]

○ 의금부(義禁府)에 전하여 이어(李瑢)를 양지(陽智)로 이배함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8月 19日(임술)]

○ 김세민(金世敏)을 개성부유수(開城府留守)로 삼음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8月 19日(임술)]

○ 경기관찰사에게 유시하여 정종(鄭宗)을 통진(通津)으로 이배하여 자기 농장에서 편안히 살도록 하고 매일 식량과 반찬을 주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8月 20日(계해)]

○ <양주> 풍양(豐壤) 등지에서 강무(講武)할 것임을 병조(兵曹)에 전지함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8月 22日(을축)]

○ 경기관찰사에게 유시하여 이어(李瑢)·이전(李璵)·정종(鄭宗) 등이 거주하는 집을 수리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8月 24日(정묘)]

○ 예조(禮曹)에서 경기관찰사의 관문(關文)에 의거하여 고려(高麗) 시조(始祖) 이하 배향제신(配享諸臣)의 위차(位次)·제사(祭祀) 등의 차례 및 방법을 아뢰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8月 26日(기사)]

○ 경기관찰사에게 유시하여 수원(水原)에 부처한 이전(李璫)과 노비에게 매월 식량과 반찬 등을 지급하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8月 26日(기사)]

○ 환자(宦者) 최습(崔濕)의 양주(楊州) 전토(田土)를 정의공주(貞懿公主)에게 하사함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9月 1日(계유)]

○ 임금이 친히 <광주> 헌릉(獻陵)과 <광주> 영릉(英陵)에 제사지냄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9月 4日(병자)]

○ 조관(朝官)을 보내 양병을 위한 각도 군사의 조정(助丁) 보충과 잡요(雜徭) 보호를 위한 수령(守令)의 태만을 검핵하는 일을 의정부(議政府)에 내려 의논토록 함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9月 4日(병자)]

○ 광주목사(廣州牧使)에게 치서하여 화원군(花園君) 이구(李侏)와 비(婢) 보배(寶背) 등이 이유(李瑜)의 처소에 왕래하는 것을 금하지 말게 함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9月 5日(정축)]

○ 경기·충청도·전라도의 관찰사(觀察使)에게 치서하여 큰 바람이 불었으니 조운선의 침몰여부를 조사 보고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9月 7日(기묘)]

○ 임금이 세자와 <양주> 건원릉(健元陵)·<양주> 현릉(顯陵)을 배알하고 돌아올 때 <양주> 아차산(峨嵯山)에서 사냥하는 것을 봄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9月 8日(경진)]

○ <마전> 승의전(崇義殿)에 있는 왕태조(王太祖)의 영정을 매안(埋安)하도록 예조(禮曹)에서 아뢰니, 묻지 말고 올려 보내라고 전교함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9月 16日(무자)]

○ 경기관찰사에게 유시하여 이유(李瑜)의 노비들이 왕래하는 것을 막지 말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9月 16日(무자)]

○ 광주목사(廣州牧使)에게 유시하여 이유(李瑜)의 처(妻)가 상경하고자 하면 즉시 치계하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9月 20日(임진)]

○ 홍달손(洪達孫)을 수충위사협책정난좌익공신(輸忠衛社協策靖難佐翼功臣) 남양군(南陽君)으로 삼음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9月 22日(갑오)]

○ 경기·충청·황해·전라도 관찰사(觀察使)에게 유시하기를 이달 3일에 파선된 병선의 진상을 파악하고 형적을 탐문하며, 병든 자를 구휼하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9月 23日(을미)]

○ 충훈부(忠勳府)에서 탄신축수재(誕辰祝壽齋)를 <양주> 삼각산(三角山)에서 베풀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9月 28日(경자)]

○ 노산군(魯山君)과 함께 <양주> 천보산(天寶山)에서 사냥하고 포천(抱川) 마암(馬巖)에서 머무르니 경기관찰사 민건(閔騫)이 문안함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9月 29日(신축)]

○ 포천(抱川)의 주엽산(注葉山)·무둔산(無菴山)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양주(楊州) 앞 벌에서 머뭇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9月 30日(임인)]

○ 포천(抱川) 주지산(注之山)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조종(朝宗) 앞 벌에서 머무르니 관찰사(觀察使) 민건(閔騫)이 문안함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10月 1日(계묘)]

○ 가평(加平) 어리산(於里山)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양주(楊州) 가배동(加背洞)으로 머무르니 관찰사(觀察使) 민건(閔騫)이 문안함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10月 2日(갑진)]

○ 거가(車駕)가 양주(楊州) 월개전(月介田)에 머무르니 관찰사(觀察使) 민건(閔騫)이 문안함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10月 3日(을사)]

○ 양주(楊州) 묘적산(妙寂山)에서 사냥하는 것을 보고 돌아옴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10月 14日(병진)]

○ 노산군(魯山君)이 <양주> 현릉(顯陵)을 배알하고 돌아오니 임금이 살곶이[箭串]에서 맞이 함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10月 29日(신미)]

○ 주·군의 읍을 합병하여 관리 2원(員)을 두는 방안을 우선 경기에 시험하기 위하여 경기관 찰사를 지낸 자를 모아서 의논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11月 1日(임신)]

○ 경기관찰사를 지낸 자들이 모여 주·군의 합병을 논의하고 집현전(集賢殿) 응교(應敎) 서강(徐岡)에게 합병교서 초안을 작성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11月 5日(병자)]

○ 동지망궐례(冬至望闕禮)에 여러 도에서 전문(箋文)과 방물(方物)을 올림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11月 8日(기묘)]

○ 교지를 내려 8도에 어사(御史)를 보내 순행 감찰하기로 함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11月 11日(임오)]

○ 임금이 서교(西郊)에 거둥하여 매사냥을 보고 돌아옴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11月 16日(정해)]

○ 개성부(開城府) 송효사(崇孝寺)의 승려 해산(海山)이 보문(寶文)·명신(明信)·설휘(雪徽) 등의 난언(亂言)을 고발하자 의금부(義禁府)에 명하여 이들을 국문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11月 27日(무술)]

○ <양주> 아차산(峨嵯山)에 있는 이문(李聞)의 집을 임영대군(臨瀛大君)에게 주도록 호조(戶曹)에 전교함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11月 28日(기해)]

○ 임금이 <광주> 천천현(穿川峴)에 거둥하여 사냥하는 것을 봄.

[세조실록 권2, 세조 1年 11月 29日(경자)]

○ 의금부(義禁府)에 전지하여 여흥(驪興)에 사는 사재감(司宰監) 노(奴) 국로(國老)가 난언(亂言)한 원인을 추국하고, <황해도> 웅진(甕津)에 부처한 최말철(崔末哲)을 석방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3, 세조 2年 1月 11日(신사)]

○ 중 득전(得田)의 쌀을 한강(漢江)에서 빼앗은 유신(柳信) 등을 처벌하도록 사헌부(司憲府)에서 아뢰니, 공신들의 자손이므로 귀양보내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3, 세조 2年 1月 16日(병술)]

○ 임금이 노산군(魯山君)과 동교(東郊)에서 매사냥을 함.

[세조실록 권3, 세조 2年 1月 25日(을미)]

○ <양주> 현릉(顯陵)의 비석 세우는 일을 정부(政府)에 의논케 하여 영의정(領議政) 정인지(鄭麟趾) 등이 반대하자 세우지 말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3, 세조 2年 1月 26日(병신)]

○ 병조(兵曹)에서 경기좌도와 강원도(江原道)의 역로(驛路)를 부성(阜盛)하는 조건을 기록하여 아뢰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3, 세조 2年 2月 7日(병오)]

○ 광주목사(廣州牧使)에게 치서하기를 이유(李瑜)를 수종하는 동복(僮僕)의 출입을 금하지 말라는 교지를 다시 살펴 망령되게 금하지 말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3, 세조 2年 2月 10日(기유)]

○ 경기우도 점마별감(點馬別監) 조청로(趙淸老)가 강화부(江華府)의 진강(鎭江)·중장(中場)·길상(吉祥)의 세 목장을 하나로 합치기를 청하니 허락함.

[세조실록 권3, 세조 2年 2月 21日(경신)]

○ 주문사(奏聞使) 신숙주(申叔舟)를 <양주> 홍제원(洪濟院)에서 맞이하도록 도승지(都承旨) 박원형(朴元亨)에게 명함.

[세조실록 권3, 세조 2年 2月 26日(을축)]

○ 좌승지(左承旨) 구치관(具致寬)에게 명하여 사은사(謝恩使) 권람(權孳)을 <양주> 홍제원(洪濟院)에서 맞이하도록 함.



[세조실록 권3, 세조 2年 2月 27日(병인)]

○ 광주목사(廣州牧使)에게 치서하여 최승종(崔承宗)이 가져가는 술·노루·감자 등을 이유(李瑜)에게 주라고 함.

[세조실록 권3, 세조 2年 3月 2日(신미)]

○ 임금이 노산군(魯山君)과 <양주> 아차산(峨嵯山)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3, 세조 2年 3月 3日(임신)]

○ 기로(耆老)들이 <여주> 보제원(普濟院)에서 잔치를 베푸니, 주악(酒樂)을 내려줌.

[세조실록 권3, 세조 2年 3月 6日(을해)]

○ 임금이 노산군(魯山君)과 동교(東郊)에 거둥하여 사냥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3, 세조 2年 3月 16日(을유)]

○ 임금이 노산군(魯山君)과 서교(西郊)에 행행(行幸)함.

[세조실록 권3, 세조 2年 3月 18日(정해)]

○ 성문치(成文治)의 양근(楊根) 집과 전토(田土) 등을 몰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줌.

[세조실록 권3, 세조 2年 3月 19日(무자)]

○ 화천위(花川尉) 권공(權恭)을 개성부(開城府)에 보내 명나라 사신 윤봉(尹鳳) 등을 선위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3, 세조 2年 3月 27日(병신)]

○ 임금이 노산군(魯山君)과 <양주> 묘적산(妙寂山)에서 사냥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3, 세조 2年 3月 28日(정유)]

○ 집현전(集賢殿) 직제학(直提學) 양성지(梁誠之)가 각도 군현과 개성(開城) 등지에 오경(五京)을 증치하고 악진해독(嶽鎭海濱)에 제사하고 능묘 수호하는 일 등을 아뢴.

[세조실록 권3, 세조 2年 3月 28日(정유)]

○ 양성지(梁誠之)가 상소하여 수원(水原)·양주(楊州) 등지에 판관(判官)을 설치할 것 및 경도(京都)의 사보(四輔)로서 양주를 후보(後輔), 수원을 전보(前輔), 광주(廣州)를 좌보(左輔), 원평(原平)을 우보(右輔)로 삼을 것과 경기의 부평(富平)·수원·원평 등지에 진(鎭)을 설치할 것을 아뢴.

[세조실록 권3, 세조 2年 4月 1日(경자)]

○ 임금이 노산군(魯山君)과 <양주> 낙천정(樂天亭)에서 매사냥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3, 세조 2年 4月 12日(신해)]

○ 임금이 노산군(魯山君)과 동교(東郊)에 거등함.

[세조실록 권3, 세조 2年 4月 15日(갑인)]

○ 좌승지(左承旨) 구치관(具致寬)을 개성부(開城府)에 보내 명나라 사신을 공궤하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3, 세조 2年 4月 18日(정사)]

○ 도승지(都承旨) 박원형(朴元亨)에게 명하여 <고양> 벽제역(碧蹄驛)에서 명나라 사신을 영위(迎慰)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4, 세조 2年 5月 8日(병자)]

○ 사헌부(司憲府)에서 통진(通津)의 아전 득성(得成)·계산(繼山)이 백성을 침해한 것을 제어하지 못한 현감(縣監) 송경(宋瓊)의 과면을 청하니 허락함.

[세조실록 권4, 세조 2年 5月 23日(신묘)]

○ 승정원(承政院)에서 임진(臨津)·임강(臨江)·장단(長湍)을 병합하여 임진을 치소로, 과천(果川)과 금천(衿川)을 병합하여 금천을 치소로 삼는 등 주·군의 병합의 편리 여부를 시험하기를 청하니 다시 의논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4, 세조 2年 5月 23日(신묘)]

○ 사헌부(司憲府)에 전지하여 강화(江華)에 부처한 나효순(羅孝純)을 석방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4, 세조 2年 5月 23日(신묘)]

○ 형조(刑曹)에 전지하여 안성(安城) 일수(日守)로 정역한 김인(金仁) 등을 석방하고 의금부(義禁府)에 전지하여 안성 일수로 정역한 범안(凡安) 등을 방면토록 함.

[세조실록 권4, 세조 2年 6月 3日(신축)]

○ 광주목사(廣州牧使)에 치서하여 이유(李瑜)의 배소에 사람을 시켜 지키게 함.

[세조실록 권4, 세조 2年 6月 8日(병오)]

○ 윤봉(尹鳳) 등이 한강(漢江)에 나아가니 예빈시(禮賓寺)에서 잔치를 베풀.

[세조실록 권3, 세조 2年 6月 17日(을묘)]

○ 광주목사(廣州牧使)에 치서하여 이유(李瑜) 등을 살피고 서장(書狀)을 갖추어 아뢰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4, 세조 2年 6月 17日(을묘)]

○ 좌부승지(左副承旨) 조석문(曹錫文)에게 명해 김흥(金興)을 한강(漢江)에서 전송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4, 세조 2年 6月 22日(경신)]

○ 광주목사(廣州牧使)에게 유시하여 이유(李瑜)에게 공례를 후하게 하고 왕골자리[茵席]를 주게 함.

[세조실록 권4, 세조 2年 7月 4日(신미)]

○ 이조(吏曹)에 전지하여 금천(衿川)과 과천(果川)을 한 현(縣)으로, 임진(臨津)·장단(長湍)·임강(臨江)을 한 현으로 합하고 금천과 임진으로 치소를 삼게 함.

[세조실록 권4, 세조 2年 7月 6日(계유)]

○ <양주> 연희궁(衍禧宮)에서 농작물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4, 세조 2年 7月 20日(정해)]

○ 이조(吏曹)에서 경기좌도·충청도의 정역찰방(程驛察訪)을 경기충청좌도(京畿忠淸左道) 정역찰방으로, 성환역(成歡驛)에서 평천역(平川驛)까지는 경기충청우도(京畿忠淸右道) 정역찰방이라 개칭하고 종래 경기좌도 찰방 소관이던 청호(菁好)·가천(加川)·강복역(康福驛)은 우도에 이속시킬 것을 아뢰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4, 세조 2年 7月 27日(갑오)]

○ 병조(兵曹)에 전지하여 경기·황해·충청·전라·경상도 목장의 마필(馬匹) 중 종자 받기에 부적합한 말들을 본도의 쇠잔한 역참(驛站)에 나누어 주게 함.

[세조실록 권4, 세조 2年 7月 28日(을미)]

○ 이조(吏曹)에 전지하여 이전(李璵)의 처소에 잡인의 출입을 금하지 못한 수원부사(水原府使) 조계평(趙季砿)을 파직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5, 세조 2年 8月 10日(정미)]

○ 대간의 청에 따라 경기 등의 손실경차관(損實敬差官)을 파견하지 않고 그 도의 수령(守令)관으로 하여금 담험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5, 세조 2年 8月 12日(기유)]

○ <여주> 고달사(高達寺)에서 모여 술을 마시다가 그들을 잡으려는 관군에게 발사(發射)한 백정 김생석(金生石) 등을 치죄하기를 의금부(義禁府)에서 아뢰니, 처자는 좌죄(坐罪)하지 말고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고 함.

[세조실록 권5, 세조 2年 8月 16日(계축)]

○ 임금이 호조판서(戶曹判書) 이인손(李仁孫) 등을 <고양> 벽제역(碧蹄驛)에 보내 윤봉(尹鳳) 등을 전송함.

[세조실록 권5, 세조 2年 8月 18日(을묘)]

○ 동교(東郊)에서 관가(觀稼) 함.

[세조실록 권5, 세조 2年 8月 20日(정사)]

○ <양주> 낙천정(樂天亭)에서 매놓는 것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5, 세조 2年 8月 21日(무오)]

○ 전제상정소(田制詳定所)에서 경기·충청도에 전제별감(田制別監)을 보내지 말라는 것에 불가함을 아뢰고 수령(守令)으로 하여금 답험하기를 청함.

[세조실록 권5, 세조 2年 8月 29日(병인)]

○ 평양선위사(平壤宣慰使) 홍심(洪深)이 중화(中和)에서 급사하니 경기·황해도·평안도 관찰사(觀察使)에게 상사(喪事)를 다스리게 함.

[세조실록 권5, 세조 2年 9月 4日(신미)]

○ <양주> 건원릉(健元陵)에 제사지냄.

[세조실록 권5, 세조 2年 9月 7日(갑술)]

○ 사헌부(司憲府)에서 <지평> 용문사(龍門寺)에 춘추로 식염(食鹽)을 주는 예를 따르기를 아뢰니, 윤택하지 않음.

[세조실록 권5, 세조 2年 9月 7日(갑술)]

○ 경기관찰사에게 치서하여 군현 병합 후 수령(守令)들에 부역을 평균하게 하기를 당부함.

[세조실록 권5, 세조 2年 9月 9日(병자)]

○ 기로(耆老) 김찬성(檢贊成) 안지(安止) 등이 <여주> 보제원(普濟院)에서 잔치를 베풀.

[세조실록 권5, 세조 2年 9月 17日(갑신)]

○ <광주> 헌릉(獻陵)과 <광주> 영릉(英陵)에 제사지냄.

[세조실록 권5, 세조 2年 9月 22日(기축)]

○ 좌의정(左議政) 한확(韓確)이 졸(卒)하여 강무(講武)를 정지하고자 하였으나, 즉위후 2년이 되도록 <풍덕> 제릉(齊陵)에 참배하지 않은 데다 강무는 큰 일이므로 정지할 수 없다고 승지(承旨)가 아뢰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5, 세조 2年 9月 27日(갑오)]

○ 임금이 <풍덕> 제릉(齊陵)에 제사하기 위해 원평(原平) 광탄(廣灘)에 머무르자 경기관찰사 이승손(李承孫)이 노루와 사슴을 바침.

[세조실록 권5, 세조 2年 9月 29日(병신)]

○ 임금이 <풍덕> 제릉(齊陵)에 제사하고 개성부(開城府)에 이르러 경덕궁(敬德宮)에 입어함.

[세조실록 권5, 세조 2年 10月 1日(정유)]

○ 개성부유수(開城府留守) 김세민(金世敏), 경기도관찰사 이승손(李承孫) 등에게 한 자급씩 더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5, 세조 2年 10月 1日(정유)]

○ 이조(吏曹)에 전지하여 개성부(開城府)에서 잔치를 내려준 노인에 산관(散官) 한 자급을 더하고, 늙은 부인은 작(爵)을 봉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5, 세조 2年 10月 2日(무술)]

○ 임금이 임강(臨江)에서 머물름.

[세조실록 권5, 세조 2年 10月 4日(경자)]

○ 삭녕(朔寧) 추두모(楸豆毛)에서 사냥하고 석교(石橋)에 머물름.

[세조실록 권5, 세조 2年 10月 6日(임인)]

○ 삭녕(朔寧) 효성산(曉星山)에서 사냥을 구경하고 회산평(回山平)에서 머물름.

[세조실록 권5, 세조 2年 10月 11日(정미)]

○ 영평(永平) 보장산(寶藏山)에서 사냥을 구경하고 <포천> 매장(每場)에 머물름.

[세조실록 권5, 세조 2年 10月 12日(무신)]

○ 임금이 동교(東郊)에서 연(輦)을 멈추니, 호가하던 종친(宗親)과 도성의 종친들이 입시하여 술자리를 베풀.

[세조실록 권5, 세조 2年 10月 26日(임술)]

○ 지평(持平) 김달전(金達全)이 아뢰기를 경기 천녕현인(川寧縣人)들이 고을 수령(守令)의 불법함을 고한 일을 들어 탄핵을 청하자 추문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5, 세조 2年 11月 20日(병술)]

○ 한강(漢江)을 통해 건너려면 벌아현(伐兒峴)의 길이 험하므로 남산(南山) 동쪽에 새 문을 짓자는 윤대 때문에 대가(大駕)가 <적성> 청학동(靑鶴洞)에 거둥하여 새 문을 짓는 것의 편부(便否)를 관찰함.

[세조실록 권5, 세조 2年 11月 23日(기축)]

○ 8도 관찰사(觀察使)에게 군현의 통합에 따른 사목(事目)을 내려 병합·분할할 땅을 갖추어 아뢰라고 유시함.

[세조실록 권5, 세조 2年 12月 1日(병신)]

○ 경기 분대겸장령(分臺兼掌令) 조추(趙秋) 등이 하직함.

[세조실록 권5, 세조 2年 12月 15日(경술)]

○ 세자가 입조(入朝)를 면한 것을 경기·황해도·평안도 관찰사(觀察使)에게 유시함.

[세조실록 58, 세조 2年 12月 23日(무오)]

○ 이조(吏曹)에서 아뢰기를 경기 금천(衿川)과 장단(長湍)에 《속전(續典)》에 의해 교관(敎官)을 두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5, 세조 2年 12月 23日(무오)]

○ 사복시(司僕寺)에서 아뢰기를 한 도(道)에 목장을 전담하는 2~3인을 두고 경기 임진(臨津)의 호곶(壺串)·강화(江華)의 장봉도(長峰道) 등지에 좋은 말을 기르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6, 세조 3年 1月 18日(계미)]

○ 경기분대 겸장령 조추가 치계하기를 뇌물을 받고도 복죄하지 않은 양성현감(陽城縣監) 견석명(甄石明)과 그 직무를 맡은 여우미(呂耆未)를 국문하기를 청하자, 이들을 사헌부(司憲府)

에 내림.

[세조실록 권6, 세조 3年 2月 6日(경자)]

○ 이조(吏曹)에서 경기관찰사 이승손(李承孫)의 계보에 의거하여 임강(臨江)·장단(長湍)·임진(臨津)의 치소를 임진에서 옛 도원역(桃源驛)의 터로 옮기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6, 세조 3年 2月 22日(병진)]

○ 도승지(都承旨) 한명회(韓明澮)에게 명하여 <양주> 건원릉(健元陵)과 <광주> 헌릉(獻陵)·<광주> 영릉(英陵)을 순심하도록 하고, 환관 전균(田詢)을 <여주> 보제원(普濟院)에 보내 전송함.

[세조실록 권6, 세조 3年 2月 25日(기미)]

○ 이조(吏曹)에서 아뢰기를 과천(果川)과 금천(衿川)을 합한 고을의 치소를 그 전대로 금천으로 삼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6, 세조 3年 2月 27日(신유)]

○ 임금이 <양주> 도봉산(道峰山)에 거둥하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7, 세조 3年 3月 1日(갑자)]

○ 사간원(司諫院)에서 아뢰기를 남양부사(南陽府使) 윤잠(尹岑) 등이 경직(京職) 제수가 부당함을 아뢰.

[세조실록 권7, 세조 3年 3月 3日(병인)]

○ 기로(耆老)와 재추(宰樞)에게 <여주> 보제원(普濟院)에서 연회를 베풀.

[세조실록 권7, 세조 3年 3月 11日(갑술)]

○ 사헌부(司憲府)에서 원점(圓點)이 차지 않으면서 동생의 이름을 속여 과장(科場)에 들어간 박형무(朴衡武)의 과죄를 청하자, 경기에 유배하고 영구히 서용하지 말도록 명함.

[세조실록 권7, 세조 3年 3月 12日(을해)]

○ 경기·경상도·전라도·충청도 등의 관찰사(觀察使)에게 유시하여 도내 공물을 각기 토산에 따라 추이하여 마감해서 아뢰게 함.

[세조실록 권7, 세조 3年 3月 15日(무인)]

○ 동교(東郊)에 거둥하여 적전(籍田)을 밟도록 하는 것 및 경기도와 충청도를 포함해 호적

을 분명히 할 것 등을 판서운관사(判書雲觀事) 양성지(梁誠之)가 상언함.

[세조실록 권7, 세조 3年 3月 24日(정해)]

○ 개성부유수(開城府留守), 평안도·황해도 관찰사(觀察使)에게 유시하여 사신의 선위주(宣慰酒)는 금후부터 연회를 베푸는 곳에서 준비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7, 세조 3年 4月 4日(정유)]

○ 판내시부사(判內侍府事) 전균(田畛)으로 하여금 명나라 사신을 <양주> 홍제원(洪濟院)에서 전별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7, 세조 3年 4月 12日(을사)]

○ <양주> 아차산(峨嵯山)에 거둥하여 사냥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7, 세조 3年 4月 13日(병오)]

○ 사헌부(司憲府)에서 경기·강원도 정역찰방(程驛察訪) 재임시 신세포(神稅布)를 남용한 강원도 대창도찰방(大昌道察訪) 윤예경(尹禮卿)을 처벌하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7, 세조 3年 4月 21日(갑인)]

○ 임금이 <양주> 아차산(峨嵯山)에서 사냥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7, 세조 3年 4月 24日(정사)]

○ 남양인(南陽人)인 전 중추원사(中樞院事) 전흥(田興)이 졸(卒)함.

[세조실록 권7, 세조 3年 4月 26日(기미)]

○ 광주목사(廣州牧使)에게 치서하여 편포(片脯) 등을 이유(李瑜)에게 전해주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7, 세조 3年 5月 4日(병인)]

○ 의정부(議政府) 지인(知印)을 경기도에 보내 과종과 구황의 일을 살펴보게 함.

[세조실록 권7, 세조 3年 5月 5日(정묘)]

○ 임금이 <광주> 헌릉(獻陵)과 <광주> 영릉(英陵)의 단오제를 지내고 <광주> 정금원(定今院)의 서산(西山)에서 사냥구경을 한 뒤 <광주> 삼전도(三田渡) 배위에서 술자리를 베풀.

[세조실록 권7, 세조 3年 5月 7日(기사)]

○ <여주> 보제원(普濟院)·<고양> 홍제원(弘濟院)·<고양> 이태원(梨泰院)에 진제장(賑濟場)



을 두고 감독하라고 호조(戶曹)에 전지함.

[세조실록 권7, 세조 3年 5月 8日(경오)]

○ 예조(禮曹)에서 농사철에 가뭄이 계속되자 경기의 악(岳)·해(海)·독(瀆)과 명산대천에 기우제를 지내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7, 세조 3年 5月 15日(정축)]

○ <양주> 건원릉(健元陵)의 망제(望祭)를 친히 행하고 <양주> 아차산(峨嵯山)에서 사냥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7, 세조 3年 5月 27日(기축)]

○ 우부승지(右副承旨) 권지(權摯)에게 개성부(開城府)에 가서 명나라 사신을 선위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8, 세조 3年 6月 1日(계사)]

○ 도승지(都承旨) 한명회(韓明澮)가 <고양> 벽제역(碧蹄驛)에 가서 명나라 사신을 맞이함.

[세조실록 권8, 세조 3年 6月 1日(계사)]

○ 개성부(開城府) 별선위사(別宣慰使) 권지(權摯), 선위사 박중손(朴仲孫)이 와서 복명함.

[세조실록 권8, 세조 3年 6月 2日(갑오)]

○ 예조(禮曹)에 전지하여 불법승(佛法僧)의 삼보인(三寶印)을 주조하여 지평(砥平) 용문사(龍門寺)에 보내게 함.

[세조실록 권8, 세조 3年 6月 7日(기해)]

○ 진감(陳鑑) 등이 한강(漢江)을 유람하고 돌아오자, 예조판서(禮曹判書) 홍윤성(洪允成) 등으로 하여금 <과천> 노량여울[露梁津] 위에서 진감을 맞이하게 하니, 그들이 배를 갈아타고 <고양> 용산여울[龍山津]에 도착함.

[세조실록 권8, 세조 3年 6月 14日(병오)]

○ 좌승지(左承旨) 조석문(曹錫文)을 별선위(別宣慰)로 삼아 개성부(開城府)로 가게 함.

[세조실록 권8, 세조 3年 6月 15日(정미)]

○ 도승지(都承旨) 한명회(韓明澮)에게 명해 <고양> 벽제역(碧蹄驛)에 가서 각궁(角弓) 등을 두 사신에게 나누어 주게 함.

[세조실록 권8, 세조 3年 6月 16日(무신)]

○ 영의정(領議政) 정인지(鄭麟趾) 등이 <고양> 벽제역(碧蹄驛)에서 와서 복명함.

[세조실록 권8, 세조 3年 6月 22日(갑인)]

○ 하등극사(賀登極使) 강맹경(姜孟卿) 등이 명나라에서 돌아오니 도승지(都承旨) 한명회(韓明澮)를 보내 <양주> 홍제원(洪濟院)에서 맞이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8, 세조 3年 6月 26日(무오)]

○ 승지(承旨) 김질(金礪)이 포천(抱川)에 있는 어미를 근친하기를 원하니 임금이 역마(驛馬)를 주게 하고, 경기관찰사에게 주찬(酒饌)을 마련하여 주게 함.

[세조실록 권8, 세조 3年 7月 5日(병인)]

○ 신석조(辛錫祖)를 이조참판(吏曹參判) 겸 경기관찰사로 임명함.

[세조실록 권8, 세조 3年 7月 14日(을해)]

○ 예조(禮曹)에서 경기·하삼도에 향과 축문을 내려 기우제를 지내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8, 세조 3年 7月 17日(무인)]

○ 병조(兵曹)에서 경상좌도의 진상과 왜인 수공품이 경유하는 경기 각역의 역승(驛丞)을 혁파하고, 찰방(察訪)으로 임명 운송하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8, 세조 3年 7月 20日(신사)]

○ 경기 수원(水原)의 임내인 용성(龍城)에 사는 김오을망(金吾乙亡)이 조원(趙援)·조복성(趙復誠) 등 안성인(安城人)이 난언(亂言)을 했다고 고하자 이들을 잡아오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8, 세조 3年 7月 22日(계미)]

○ 가뭄 끝에 비가 왔다하여 경기관찰사 신석조(辛錫祖) 등을 인견하고 향온을 시식케 함.

[세조실록 권8, 세조 3年 7月 30日(신묘)]

○ 안성인(安城人) 장인손(蔣仁孫)이 이귀성(李貴成)·송계은(宋繼殷) 등이 난언(亂言)을 하였다고 고하자 의금부지사(義禁府知事) 신윤조(辛潤祖)로 하여금 이들을 잡아오게 함.

[세조실록 권8, 세조 3年 8月 2日(계사)]

○ 세자의 병때문에 이중(李重)을 <개성> 송악에, 이연손(李延孫)을 <적성> 감악산(紺岳山)에, 양성지(梁誠之)를 <충청도 평택> 대정(大井)에, 성임(成任)을 <장단> 덕진(德津)·<양주>

양진(楊津)·〈인천〉 덕적도(德積島)에 보내 기도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8, 세조 3年 8月 8日(기해)]

○ 광주인(廣州人)인 채임손(蔡任孫)인 죽은 노식(盧湜)의 처(妻)가 부도한 말을 하였다고 고하니 의금부(義禁府)에 명하여 잡아오게 함.

[세조실록 권8, 세조 3年 8月 14日(을사)]

○ 김광수(金光粹)를 개성부유수(開城府留守)로 임명함.

[세조실록 권8, 세조 3年 8月 14日(을사)]

○ 호조(戶曹)에서 경기·충청도·전라도·경상도의 여러 관사에서 바치는 세공의 물건과 전세에서 나오는 공물가운데 감할 것을 아뢰자,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8, 세조 3年 8月 18日(기유)]

○ 의금부(義禁府)에 전지하여 천녕(川寧)의 관노(官奴)로 영속한 최치돈(崔致敦) 등을 석방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8, 세조 3年 8月 24日(을묘)]

○ 서교(西郊)에서 농사작황을 돌아봄.

[세조실록 권8, 세조 3年 8月 30日(신유)]

○ 의금부(義禁府)에 전지하여 수원(水原) 임내인 용성(龍城)의 선군(船軍) 김오을망(金吾乙亡) 등 고변자를 석방하여 보내게 함.

[세조실록 권8, 세조 3年 9月 5日(병인)]

○ 한성부윤(漢城府尹) 이순지(李純之) 등을 양주(楊州) 대방동(大方洞)으로 보내 왕세자의 묘지를 살피게 함.

[세조실록 권8, 세조 3年 9月 6日(정묘)]

○ 한성부윤(漢城府尹) 이순지(李純之) 등을 광주(廣州)·과천(果川) 등지에 보내 왕세자의 묘지를 살피게 함.

[세조실록 권8, 세조 3年 9月 7日(무진)]

○ 사복시(司僕寺) 제조(提調)가 강화(江華)의 장봉도(長峰島) 목장에서 기른 말을 서울·북일목장(北一牧場)·진강목장(鎭江牧場) 등에 보내고 털과 치아를 본사에 보고하여 마적(馬籍)

에 등록하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9, 세조 3年 9月 7日(무진)]

○ 왕세자의 초재(初齋)를 <양주> 진관사(津寬寺)에서 베풀.

[세조실록 권9, 세조 3年 9月 8日(기사)]

○ 정업원(淨業院)을 만들어 <양주> 삼각산(三角山)에 살며 걸식하는 기민(饑民)들이 모여살 수 있도록 하라고 승정원(承政院)에 전지함.

[세조실록 권9, 세조 3年 9月 10日(신미)]

○ 정인지(鄭麟趾)·강맹경(姜孟卿) 등으로 하여금 한강(漢江) 나루 남쪽에 가서 왕세자의 묘지를 상지(相地)하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9, 세조 3年 9月 12日(계유)]

○ 임금이 한강(漢江)을 건너 <광주> 사평원(沙平院)에 머물러 전일 강맹경(姜孟卿)이 아뢴 땅을 살펴보았으나 마땅치 않아 영의정(領議政) 정인지(鄭麟趾) 등을 <광주> 헌릉(獻陵)에, 우의정(右議政) 강맹경 등을 <양주> 건원릉(健元陵)에 가서 각각 세자의 묘지를 상지(相地)하게 하고 환궁함.

[세조실록 권9, 세조 3年 9月 12日(계유)]

○ 안효례(安孝禮)가 과천(果川) 청계산(淸溪山) 근처에 왕세자의 묘지로 쓸 만한 땅이 있다고 아뢴.

[세조실록 권9, 세조 3年 9月 12日(계유)]

○ 이조(吏曹)에서 병조(兵曹)의 수교한 관문에 의거하여 경기·충청도·전라도 등지의 각 역(驛)의 편제를 정비함.

[세조실록 권9, 세조 3年 9月 13日(갑술)]

○ 과천(果川) 인덕원(仁德院) 동쪽의 산세를 살펴보고, 다시 광주(廣州)로 가서 묘지를 살펴봄.

[세조실록 권9, 세조 3年 9月 14日(을해)]

○ 우의정(右議政) 강맹경(姜孟卿) 등으로 하여금 고양(高陽)에 가서 묘지를 살펴보게 함.

[세조실록 권9, 세조 3年 9月 14日(을해)]

○ 별시위(別侍衛) 박효린(朴孝麟)이 양주(楊州)의 산을 묘지터로 고하니 좌참찬(左參贊) 박중손(朴仲孫)에게 명하여 살펴보게 함.

[세조실록 권9, 세조 3年 9月 14日(을해)]

○ 정인지(鄭麟趾)·강맹경(姜孟卿) 등이 복명하여 광주(廣州) 관서(官西) 동쪽산과 원평(原平) 동쪽산을 묘지로 쓸 만한 산이 있다고 아뢰자 직접 거동하여 살펴보겠다고 답함.

[세조실록 권9, 세조 3年 4月 14日(을해)]

○ 세자의 이재(二齋)를 <양주> 진관사(津寬寺)에서 베풀.

[세조실록 권9, 세조 3年 9月 14日(을해)]

○ 의금부(義禁府)에 전지하여 장인손(蔣仁孫)이 고발한 안성(安城)에 사는 이귀선(李貴先) 등을 놓아 보내게 함.

[세조실록 권9, 세조 3年 9月 15日(병자)]

○ 원평(原平)에 거동하여 강맹경(姜孟卿)이 아뢰 산을 살펴봄.

[세조실록 권9, 세조 3年 9月 16日(정축)]

○ 전에 살펴본 과천(果川)·원평(原平)의 산세를 대신들과 의논함.

[세조실록 권9, 세조 3年 9月 19日(경진)]

○ 호조판서(戶曹判書) 권준(權遵) 등을 양근(楊根)·미원(迷原)·교하(交河)·원평(原平)·용인(龍仁) 등에 보내 땅을 살펴보게 함.

[세조실록 권9, 세조 3年 9月 19日(경진)]

○ 이조(吏曹)에서 경기관찰사가 금천(衿川)과 과천(果川)을 합친 치소를 과천현으로 삼으려는데 부당함을 고하고 종전대로 금천으로 치소를 삼을 것을 건의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9, 세조 3年 9月 21日(임오)]

○ 왕세자의 삼재(三齋)를 <양주> 진관사(津寬寺)에서 베풀.

[세조실록 권9, 세조 3年 9月 22日(계미)]

○ 신숙주(申叔舟) 등을 금천(衿川)·인천(仁川)·광주(廣州)·고양(高陽)에 보내 땅을 살펴보게 함.

[세조실록 권9, 세조 3年 9月 23日(갑신)]

○ 충익사(忠翊司)가 <양주> 영국사(寧國寺)에서 축수재(祝壽齋)를 베풀.

[세조실록 권9, 세조 3年 10月 4日(갑오)]

○ 예조참판(禮曹參判) 이순지(李純之) 등에게 명하여 양주(楊州)·풍양(豐壤) 등지의 땅을 살펴보게 함.

[세조실록 권9, 세조 3年 10月 6日(병신)]

○ <양주> 풍양(豐壤)·토원(兔院) 등지에 거둥하여 묘지를 살펴봄.

[세조실록 권9, 세조 3年 10月 11日(신축)]

○ 우의정(右議政) 강맹경(姜孟卿) 등이 원평(原平)의 묘지가 협소하다고 아뢰자 역사(役事)를 정지하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9, 세조 3年 10月 13日(계묘)]

○ 강맹경(姜孟卿) 등을 교하(交河)·고양(高陽) 등지에 보내 땅을 살펴보게 함.

[세조실록 권9, 세조 3年 10月 13日(계묘)]

○ 강맹경(姜孟卿) 등이 돌아와 고양(高陽) 동쪽 도총제(都摠制) 정이(鄭易)의 분묘가 있는 산이 쓸 만하다고 아뢰.

[세조실록 권9, 세조 3年 10月 14日(갑잔)]

○ 고양현(高陽縣) 봉현(蜂峴)에 거둥하여 정이(鄭易)의 분묘를 살피고 향배(向背)를 정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9, 세조 3年 10月 17日(정미)]

○ 형조(刑曹)에 전지하여 용인(龍仁)에 도둑떼가 나타났는데도 고하지 않은 자와 인리(隣里)를 죄로 다스리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9, 세조 3年 10月 19日(기유)]

○ <고양> 봉현(蜂峴)에 거둥하여 전일에 정한 산을 살펴봄.

[세조실록 권9, 세조 3年 10月 29日(기미)]

○ 각도 찰방(察訪)에게 유시하여 역로(驛路)에 관한 폐단을 계문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10, 세조 3年 11月 5日(을축)]

○ 각도 관찰사(觀察使)에게 유시하여 농상·목축·제언에 뛰어난 자의 공적을 기록 계문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10, 세조 3年 12月 19日(기유)]

○ 거가(車駕)가 동교(東郊)에 행행(行幸)함.

[세조실록 권10, 세조 3年 12月 25日(을묘)]

○ <장단> 호곶(壺串)과 <광주> 삼전도(三田渡) 등에서 말꼴을 운반해와 보관하도록 병조(兵曹)에서 아뢰니,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11, 세조 4年 1月 4日(계해)]

○ 이조(吏曹)에서 경기관찰사와 절제사(節制使)를 겸차하도록 청하자,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11, 세조 4年 1月 4日(계해)]

○ 신석조(辛錫祖)를 중추원부사(中樞院副使) 겸 경기도관찰출척사병마도절제사(京畿都觀察黜陟使兵馬都節制使)로 삼음.

[세조실록 권11, 세조 4年 1月 17日(병자)]

○ 형조(刑曹)에서 각도의 유이민과 누협호(漏挾戶)의 술정(率丁)은 3월 이후는 전례에 따라 환본하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11, 세조 4年 1月 20日(기묘)]

○ 부장(部長) 황석생(黃石生) 등을 개성부(開城府)·수원(水原)·양주(楊州)·광주(廣州)에 보내 제진(諸鎭)의 습진(習陣)하는 것을 보게 함.

[세조실록 권11, 세조 4年 1月 23日(임오)]

○ 동교(東郊)에 거둥하여 매사냥과 습진(習陣)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11, 세조 4年 2月 4日(계사)]

○ <양주> 삼각산(三角山)·목덕산(木覓山)·한강(漢江)에 제사를 쓸 향과 축문을 전함.

[세조실록 권11, 세조 4年 2月 5日(갑오)]

○ 부장(部長) 허형손(許亨孫)·마중규(馬仲規)를 용인(龍仁)에 보내 도둑을 잡게 함.

[세조실록 권11, 세조 4年 2月 8日(정유)]

○ 의금부(義禁府)에 전지하기를 우마(牛馬)를 몰래 도살한 광주(廣州) 초평리(草坪里)의 갑사(甲士) 김광수(金光守)와 인근의 백정들을 국문토록 함.

[세조실록 권11, 세조 4年 2月 16日(을사)]

○ 개성부유수(開城府留守)로 병마절도사(兵馬節度使)의 직을 겸차하도록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11, 세조 4年 2月 16日(을사)]

○ 각도의 채방(採訪)을 돌아오게 함.

[세조실록 권11, 세조 4年 2月 18日(정미)]

○ 김광수(金光守)를 개성부유수(開城府留守) 겸 병마절제사(兵馬節制使)로 삼음.

[세조실록 권11, 세조 4年 2月 22日(신해)]

○ 이조(吏曹)에서 경기관찰사를 도절제사(都節制使)·경력소도사(經歷所都事)의 직을 겸차할 것을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11, 세조 4年 2月 26日(을묘)]

○ 병조(兵曹)에서 각도 거진(巨鎭)의 습진사목(習陣事目)을 아뢰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11, 세조 4年 2月 27日(병진)]

○ 경기·강원도 등 관찰사(觀察使)와 각도 절제사(節制使)에게 치서하여 제진(諸鎭)에 나누어 보낸 화살을 표본삼아 만들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11, 세조 4年 2月 28日(정사)]

○ 경기관찰사에게 치서하여 직금(織金)에 소요되는 홍어피 2백 장을 해마다 갖추어 보내게 함.

[세조실록 권11, 세조 4年 2月 29日(무오)]

○ <과천> 청계산(淸溪山)에 거둥하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11, 세조 4年 윤 2月 7日(을축)]

○ 좌찬성(左贊成) 신숙주(申叔舟) 등을 주장(主將)으로 삼아 <부평> 대야원(大也院) 들에서 습진(習陣) 함.



[세조실록 권11, 세조 4年 윤 2月 9日(정묘)]

○ 신석조(辛錫祖)를 이조참판(吏曹參判) 겸 경기도관찰출척사병마도절제사(京畿都觀察黜陟使兵馬都節制使)로 임명함.

[세조실록 권11, 세조 4年 윤 2月 12日(경오)]

○ 우찬성(右贊成) 황수신(黃守身) 등을 보내 <양주> 건원릉(健元陵)의 보토(補土)한 곳을 살피게 함.

[세조실록 권11, 세조 4年 윤 2月 13日(신미)]

○ 경기 안성인(安城人) 노효인(盧孝仁)을 난언(亂言)한 죄로 의금부(義禁府)에 가두고 국문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11, 세조 4年 윤 2月 21日(기묘)]

○ 양주(楊州) 묘적산(妙寂山)에서 사냥하고 돌아옴.

[세조실록 권11, 세조 4年 윤 2月 27日(을유)]

○ 경기관찰사 신석조(辛錫祖)에게 유시하여 기내의 남도(南道)에서 실농한 사람의 진휼을 당부함.

[세조실록 권11, 세조 4年 3月 1日(무자)]

○ 친히 <광주> 헌릉(獻陵)과 <광주> 영릉(英陵)에 제사지내고 돌아오다가 살곶이[箭串]에서 매사냥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11, 세조 4年 3月 3日(경인)]

○ 기로재추연(耆老宰樞宴)을 <여주> 보제원(普濟院)에서 베풀음.

[세조실록 권12, 세조 4年 3月 5日(임진)]

○ 병조(兵曹)에서 경기도관찰사의 관계(關啓)에 의거하여 각도의 군사와 번상하는 시위패(侍衛牌) 등의 말에 사용하는 낙인 중 파익(罷翼)한 각읍의 낙인을 돌려보내도록 할 것을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12, 세조 4年 3月 8日(을미)]

○ 이조정랑(吏曹正郎) 안초(安韶)를 경기에 보내 각읍의 권농·역민(役民)·제언 등의 일을 살피게 함.

[세조실록 권12, 세조 4年 3月 24日(신해)]

○ 의금부(義禁府)에 전지하여 농사에 시기를 놓친 용인현령(龍仁縣令) 강숙(姜淑)을 추국하여 아뢰게 함.

[세조실록 권12, 세조 4年 3月 24日(신해)]

○ 공조(工曹)에서 경기관찰사의 계본의 의거하여 <광주> 삼전도승(三田渡丞)으로 하여금 <광주> 광나루[廣津]을 겸하여 다스리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12, 세조 4年 4月 2日(기미)]

○ 경기·전라·충청도의 관찰사(觀察使)에 유시하여 지난 3월 27일 대풍우(大風雨)에 표류한 자를 구할 것 을 당부함.

[세조실록 권12, 세조 4年 4月 3日(경신)]

○ 각도 관찰사(觀察使)에게 유시하여 20세 이상은 모두 호적에 기록하여 아뢰게 함.

[세조실록 권12, 세조 4年 4月 3日(경신)]

○ 효령대군(孝寧大君) 이보(李補)가 금강산(金剛山)에 가니 경기·강원도 관찰사에 유시하여 관대를 후하게 하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12, 세조 4年 4月 4日(신유)]

○ 공조(工曹)에서 아뢰기를 저축한 황금이 적으므로 각도에서 캐기를 청하니 허락함.

[세조실록 권12, 세조 4年 4月 11日(무진)]

○ 서교(西郊)에 거둥하여 신수전(新水田)의 방천(防川)을 구경하고 광주(廣州)·양주(楊州)·원평(原平)·금천(衿川)·고양(高陽) 수령(守令)을 불러와 방천할 만한 곳을 물어봄.

[세조실록 권12, 세조 4年 4月 24日(신사)]

○ 이조(吏曹)에서 각도 관찰사(觀察使)로 하여금 학교의 교화를 위해 학행이 있는 자를 교관(敎官)으로 임명하여 풍교(風敎)를 다스리도록 할 것을 아뢰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12, 세조 4年 4月 27日(갑신)]

○ 의금부(義禁府)에 전지하여 양주(楊州) 존자암(尊者庵) 승려 신원(信元)의 치사(致死) 원인을 추국 계문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12, 세조 4年 5月 3日(기축)]

○ 예조(禮曹)에서 경기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여름철 우택(雨澤)이 시기를 어기니 명산대 천 등지에 기우제 지내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12, 세조 4年 5月 15日(신축)]

○ 각도 관찰사(觀察使)에게 유시하여 조한(早旱)의 극복을 위해 김매는데 진력하기를 당부 함.

[세조실록 권12, 세조 4年 5月 21日(정미)]

○ 임금이 서교(西郊)에 행행(行幸)하여 농작물을 살펴봄.

[세조실록 권13, 세조 4年 6月 22日(무인)]

○ 우참찬(右參贊) 성봉조(成奉祖), 예조참판(禮曹參判) 조효문(曹孝門) 등을 보내 <광주> 현릉(獻陵)·<광주> 영릉(英陵)의 사토(沙土)가 무너진 곳을 살펴보게 함.

[세조실록 권13, 세조 4年 6月 25日(신사)]

○ 장단(長湍)·임진(臨津)·임강(臨江)을 합하여 임진이라 칭한 지명을 장단으로 하고 현령을 임명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13, 세조 4年 6月 28日(갑신)]

○ 김연지(金連枝)를 중추원부사(中樞院副使) 겸 경기도관찰사 병마도절제사(兵馬都節制使)로 삼음.

[세조실록 권13, 세조 4年 7月 7日(임진)]

○ 경기의 가평(加平)·수원(水原)·연천(漣川) 등지에 명충(螟蟲)이 발생함.

[세조실록 권13, 세조 4年 7月 8日(계사)]

○ 경기 수원부(水原府)에 큰 바람과 비로 벼가 손상을 입음.

[세조실록 권13, 세조 4年 7月 14日(기해)]

○ 경기·강원도 관찰사(觀察使)에 명하여 고성(高城) 온정에 목욕가는 신빈(愼嬪)과 숙의(淑儀)의 지공(支供)을 당부함.

[세조실록 권13, 세조 4年 7月 16日(신축)]

○ 사헌부(司憲府)에서 관찰사(觀察使)에게 파출당한 전 임진수령(臨津守令) 하여덕(河如德)이 다시 녹용됨의 부당함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함.

[세조실록 권13, 세조 4年 8月 19日(갑술)]

○ 임금이 살곶이[箭串] 들[坪]에 거둥하여 매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, 야인(野人) 이고납합(李古納合) 등이 어가(御駕)를 수종(隨從)하여 <양주> 낙천정(樂天亭)에 이르니, 술자리를 베풀.

[세조실록 권13, 세조 4年 8月 21日(병자)]

○ 난언(亂言)을 한 수원인(水原人) 별시위(別侍衛) 김효생(金孝生)을 의금부(義禁府)에 내려 추구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14, 세조 4年 9月 2日(병술)]

○ 새로 만든 발병부(發兵符)를 각도 관찰사(觀察使)와 절제사(節制使)에게 나누어 보냄.

[세조실록 권14, 세조 4年 9月 5日(기축)]

○ 경기·충청도 관찰사(觀察使)에게 유사하여 양지현(陽智縣)의 자수정(紫水晶) 출토지에 감고(監考)를 정하여 간수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14, 세조 4年 9月 26日(경술)]

○ 임금이 <양주> 낙천정(樂天亭)에 이르러 대열(大閱)하고, 저녁에 <양주> 아차산(峨嵯山) 아래의 이궁(離宮)에서 유숙함.

[세조실록 권14, 세조 4年 9月 27日(신해)]

○ 임금이 토기산(土其山)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할 때 경기관찰사 김연지(金連枝) 등이 호위함.

[세조실록 권14, 세조 4年 9月 28日(임자)]

○ 임금이 <양주> 아차산(峨嵯山)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, 저녁 때에 이궁(離宮)에 머물러 종친(宗親)과 재추(宰樞)를 불러 술자리를 베풀.

[세조실록 권14, 세조 4年 9月 30日(갑인)]

○ <양주> 묘적산(妙寂山)에서 사냥을 구경하고 경기관찰사 김연지(金連枝)에게 추위에 떠는 사졸들을 찾아 구호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14, 세조 4年 10月 5日(기미)]

○ 전날 <양주> 묘적산(妙寂山)에서 사냥할 때 임금이 기한(飢寒)에 떠는 군사를 먹이도록 명하였는데, 이를 이행하지 않은 환관 김수경(金守經)을 처벌할 것을 의금부(義禁府)에서 청하

여 김수경을 태(笞) 50대를 때려 고신(告身)을 거두게 함.

[세조실록 권14, 세조 4年 10月 9日(계해)]

○ 경기관찰사에게 경상도(慶尙道)의 농사습속을 본받아 경기민들에게 권농의 습속을 익히기를 권유하라고 유시함.

[세조실록 권14, 세조 4年 11月 3日(정해)]

○ 경기관찰사에게 유시하여 낙마한 익현군(翼峴君)과 이를 구료하려 간 계양군(桂陽君)에게 음식물을 지대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14, 세조 4年 11月 10日(갑오)]

○ 내의(內醫) 김길호(金吉浩)를 남양(南陽)에 보내 익현군(翼峴君)의 병을 문안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14, 세조 4年 11月 27日(신해)]

○ 전 부사직(副司直) 최정안(崔井安)이 권농책과 안산(安山)·광주(廣州) 등지에 하천제방을 막을 만한 지역 등을 아뢰자 경기관찰사에 치서하여 공역의 여부를 묻게 함.

[세조실록 권14, 세조 4年 12月 20日(갑술)]

○ 임금이 <과천> <광주> 청계산(淸溪山)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15, 세조 5年 1月 8日(신묘)]

○ 임금이 선공감(繕工監)에 명하여 군인 5백 명을 거느리고 <양주> 풍양궁(豐壤宮)을 수리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15, 세조 5年 1月 15日(무술)]

○ 한성부(漢城府)에서 호조(戶曹)의 관문(關文)에 의거하여 <광주> 광나루[廣津]·<광주> 삼전도(三田渡)·한강(漢江)·임진(臨津) 등지에서 도승(渡丞)이 보리가 익을 때까지 소재 고을에서 기민을 진휼하게 하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15, 세조 5年 1月 24日(정미)]

○ 충청도도순문진휼사(忠淸道都巡問賑恤使) 황수신(黃守身)이 하직하니 술자리를 베풀어 위로하여 보내고, 운성부원군(雲城府院君) 박종우(朴從愚) 등에게 명해 <양주> 한강(漢江)에서 전별(錢別)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15, 세조 5年 1月 27日(경술)]

○ 천기(天氣)가 춥고 비가 오니, 임금이 <양주> 풍양궁(豐壤宮)에 부역하는 군졸(軍卒)들을 염려하여 주서(注書)를 보내어 술을 가지고 가서 먹이게 함.

[세조실록 권15, 세조 5年 2月 1日(갑인)]

○ 경기관찰사에게 유시하여 이천(利川)에 가는 양녕대군(讓寧大君)을 위로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15, 세조 5年 2月 5日(무오)]

○ 우부승지(右副承旨) 정식(鄭軾)에게 명하여 <양주> 건원릉(健元陵) 위의 사토(莎土)가 무너진 곳을 살피게 함.

[세조실록 권15, 세조 5年 2月 26日(기묘)]

○ 사헌부(司憲府)에서 이궁(離宮) 앞에 다리가 대가(大駕)가 지나간 후 무너진 일로 양주부사(楊州府使) 김진지(金震知)의 핵문을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15, 세조 5年 3月 10日(임진)]

○ 도승지(都承旨) 조석문(曹錫文)이 경기의 구황사목(救荒事目)을 아뢴.

[세조실록 권15, 세조 5年 3月 10日(임진)]

○ 호조(戶曹)에 명하여 군자창(軍資倉)의 쌀과 소금으로 경기민을 진휼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15, 세조 5年 3月 11日(계사)]

○ 광주인(廣州人) 관압사(管押使) 이예손(李禮孫)이 봉산(鳳山)에서 졸(卒)함.

[세조실록 권15, 세조 5年 3月 15日(정유)]

○ 선위사(宣慰使)로 예조참판(禮曹參判) 조효문(趙孝文)을 개성부(開城府)에 보냄.

[세조실록 권15, 세조 5年 3月 16日(무술)]

○ 임금이 <양주> 아차산(峨嵯山)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니, 왕세자가 수종(隨從)함.

[세조실록 권16, 세조 5年 4月 2日(계축)]

○ 좌승지(左承旨) 김질(金礪)을 별선위사(別宣慰使)로 개성부(開城府)에 보냄.

[세조실록 권16, 세조 5年 4月 10日(신유)]

○ 명(明)나라 사신(使臣) 진가유(陳嘉猷) 등이 <양주> 한강(漢江)을 유람하니, 관반(館伴)인 박원형(朴元亨)과 우찬성(右贊成) 권람(權孳) 등이 동행함.

[세조실록 권16, 세조 5年 4月 15日(병인)]

○ 임금이 모화관(慕華館)에 거둥하여 명(明)나라 사신을 전별(餞別)하고, 강맹경(姜孟卿) 및 예조 판서(禮曹判書) 홍윤성(洪允成)에게 명하여 <고양> 벽제역(碧蹄驛)에 가서 전별(餞別)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16, 세조 5年 4月 17日(무진)]

○ 남양도호부사(南陽都護府使) 박이(朴離)가 하직함.

[세조실록 권16, 세조 5年 4月 21日(임신)]

○ 병조(兵曹)에서 경기관찰사의 관문(關文)에 의거하여 임진현(臨津縣)을 장단현(長湍縣)에 합하였으니 병부(兵符)를 발할 적에 장단이라 칭할 것을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16, 세조 5年 4月 29日(경진)]

○ 경기관찰사에게 유시하여 도내에서 씨앗뿌리는 시기를 지키지 못한 이유를 아뢰게 함.

[세조실록 권16, 세조 5年 4月 29日(경진)]

○ 대관(臺官) 윤기반(尹起礪)과 이근(李覲)을 경기좌우도에 보내 씨앗뿌리는 일을 검찰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16, 세조 5年 5月 8日(기축)]

○ 좌의정(左議政) 강맹경(姜孟卿) 등이 이유(李瑜)와 함께 <양주> 사천(沙川)에서 사냥을 하는 등 죄악이 많은 홍약(洪約)을 다시 임용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음.

[세조실록 권16, 세조 5年 5月 28日(기유)]

○ 경기관찰사 김연지(金連枝)가 세 가지가 난 보리이삭을 바침.

[세조실록 권16, 세조 5年 6月 18日(무진)]

○ 형조(刑曹)에 전지하여 경기우도 정포(井浦)에 충군된 정금(鄭今) 등을 놓아보내게 함.

[세조실록 권16, 세조 5年 6月 26日(병자)]

○ 좌의정(左議政) 강맹경(姜孟卿), 우찬성(右贊成) 황수신(黃守身) 등에게 명하여 <광주> 영릉(英陵)의 주맥(主脈)이 무너진 곳을 봉심(奉審)하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17, 세조 5年 7月 2日(신사)]

○ 여러 도(道)의 군정(軍丁)을 점고하기 위해 영중추원사(領中樞院事) 이계전(李季甸)을 경

기도체찰사(京畿道體察使)로, 경기관찰사 김연지(金連枝)를 충청도순찰사 등으로 삼음.

[세조실록 권17, 세조 5年 7月 3日(임오)]

○ 신석조(辛錫祖)를 개성부유수(開城府留守)로, 민건(閔騫)을 동지중추원사(同知中樞院事) 겸 경기도관찰사로, 윤은(尹垠)을 판광주목사(判廣州牧使)로 임명함.

[세조실록 권17, 세조 5年 7月 6日(을유)]

○ 경기관찰사 등에게 유시하여 호적 정비의 본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여 동요가 없게 하기를 당부함.

[세조실록 권17, 세조 5年 7月 10日(기축)]

○ 형조(刑曹)에서 경기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고을 수령(守令)을 업신여긴 광주감사(廣州甲士) 하운생(河閏生) 등을 저택(潛宅)하고 고을에서 내쫓게 하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17, 세조 5年 7月 11日(경인)]

○ 병조(兵曹)에서 경기의 수원(水原)·광주(廣州)·양주(楊州)·강화(江華)·개성부(開城府) 등지에 진인(鎭印)을 만들어 보내주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17, 세조 5年 7月 12日(신묘)]

○ 경기도관찰사 민건(閔騫)이 하직함.

[세조실록 권17, 세조 5年 7月 14日(계사)]

○ 재상경차관(災傷敬差官)을 경기·충청도 등지에 보냄.

[세조실록 권17, 세조 5年 8月 10日(기미)]

○ 이조판서(吏曹判書) 구치관(具致寬)이 실농이므로 손실경차관(損實敬差官)을 정지시키고 수령관 등으로 조사하기를 청하자 경기·강원도 등지의 경차관을 정지함.

[세조실록 권17, 세조 5年 8月 17日(병인)]

○ 좌의정(左議政) 강맹경(姜孟卿)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, 영천부원군(鈴川府院君) 윤사로(尹師路)에게 명하여 한강(漢江)에서 전별(餞別)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17, 세조 5年 8月 18日(정묘)]

○ 이조(吏曹)에서 임진(臨津)·임강(臨江)을 합친 장단현(長湍縣)의 민호가 1천 22호에 이르면 군(郡)으로 승격시켜 주기를 청하자 허락함.



[세조실록 권17, 세조 5年 8月 22日(신미)]

○ 경기·충청도 등의 관찰사(觀察使)에게 유시하여 양녕대군(讓寧大君)이 동래온정(東萊溫井)에 목욕을 가니 후하게 대접하기를 당부함.

[세조실록 권17, 세조 5年 9月 6日(을유)]

○ 호조(戶曹)에서 아뢰기를 영동(嶺東)의 산돼지를 경기의 여러 고을에서 공납하는 마른 돼지와 바꾸어 기르도록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17, 세조 5年 9月 8日(정해)]

○ <양주> 도봉산(道峯山)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17, 세조 5年 9月 10日(기축)]

○ 양근군사(楊根郡事)·개성유수(開城留守)를 지낸 지돈녕부사(知敦寧府事) 강석덕(江錫德)이 졸(卒)함.

[세조실록 권18, 세조 5年 10月 2日(경술)]

○ 자성왕비(慈聖王妃)의 내향(內鄉)인 원평부(原平府)를 파주목(坡州牧)으로 승격시킴.

[세조실록 권18, 세조 5年 10月 6日(갑인)]

○ 강도 정선(丁善)을 잡은 수원도호부사(水原都護府使) 최제남(崔悌男)을 한 자급 올려주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18, 세조 5年 10月 11日(기미)]

○ <양주> 풍양(豐壤)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, 저녁에 이궁(離宮)에 머물름.

[세조실록 권18, 세조 5年 10月 12日(경신)]

○ <포천> 무둔산(無菴山)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, 저녁에 불정동구(佛丁洞口)에 머물름.

[세조실록 권18, 세조 5年 10月 13日(신유)]

○ 포천(抱川)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안기역(安奇驛) 앞 들에 머물름.

[세조실록 권18, 세조 5年 10月 13日(신유)]

○ 포천현(抱川縣) 노인 검호조참의(檢戶曹參議) 민안수(閔安修) 등에게 쌀을 하사함.

[세조실록 권18, 세조 5年 10月 14日(임술)]

○ 〈포천〉 왕방산(王方山)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18, 세조 5年 10月 15日(계해)]

○ 〈양주〉 풍양(豐壤)의 이궁(離宮)에 이르러, 관사(館舍)에 머물고 있는 왜인(倭人)들에게 음식을 내려줌.

[세조실록 권18, 세조 5年 10月 16日(갑자)]

○ 〈양주〉 풍양(豐壤)의 이궁(離宮)에 머뭇.

[세조실록 권18, 세조 5年 10月 18日(병인)]

○ 임금이 〈양주〉 풍양(豐壤) 냇가의 산봉우리에 올라서 화천군(花川君) 권공(權恭)과 중추원사(中樞院事) 박강(朴薑)으로 하여금 군사를 나누어 싸움하는 형세를 만들게 하고 이를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18, 세조 5年 10月 24日(임신)]

○ 신석조(辛錫祖)를 개성부유수(開城府留守)로 임명함.

[세조실록 권18, 세조 5年 11月 5日(계미)]

○ 자성왕비(慈聖王妃)의 외향(外鄉)인 인천군(仁川郡)을 도호부(都護府)로 삼음.

[세조실록 권18, 세조 5年 11月 13日(신묘)]

○ 개성부유수(開城府留守) 신석조(辛錫祖)가 졸(卒)함.

[세조실록 권18, 세조 5年 12月 1日(기유)]

○ 황효원(黃孝源)을 경기관찰사로 삼아 유이민을 다스리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18, 세조 5年 12月 2日(경술)]

○ 병조(兵曹)에 전지하여 경기 군적(軍籍) 정비를 우선 정지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18, 세조 5年 12月 2日(경술)]

○ 경기의 천신(薦新) 이외의 삭망(朔望) 진상을 정지하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18, 세조 5年 12月 3日(신해)]

○ 권지(權摯)를 개성부유수(開城府留守)로, 황효원(黃孝源)을 경기도관찰사로 삼음.

[세조실록 권18, 세조 5年 12月 8日(병진)]

○ 사간원(司諫院)에서 아뢰기를 경기의 백성들이 유이한데도 구휼하지 못한 관찰사(觀察使) 민건(閔騫)의 파직을 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음.

[세조실록 권18, 세조 5年 12月 16日(갑자)]

○ 사헌부(司憲府)에서 아뢰기를 백성이 유이하였는데도 포폄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기관찰사와 광주(廣州)와 용인(龍仁)의 수령(守令)을 핵실할 것을 청함.

[세조실록 권18, 세조 5年 12月 16日(갑자)]

○ 사헌부(司憲府)에 전지하여 백성을 진휼하지 않은 광주목사(廣州牧使)·양주부사(楊州府使)·용인현령(龍仁縣令) 등을 추국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18, 세조 5年 12月 17日(을축)]

○ 한성부(漢城府)에서 진제장을 <여주> 보제원(普濟院)·<고양> 이태원(梨泰院)·<양주> 홍제원(洪濟院)에 설치하여 경기의 굶주린 백성을 진휼할 것을 아뢰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18, 세조 5年 12月 22日(경오)]

○ 경기·강원도 진휼사(賑恤使) 김순(金淳)과 경기관찰사 황효원(黃孝源)에게 치서하여 백성 중 곡식 종자를 많이 가진 자가 관청에 곡식을 바치는 것을 허락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19, 세조 6年 1月 12日(경인)]

○ 경기우도 찰방(察訪) 이윤인(李尹仁)을 잔열하다 하여 파직함.

[세조실록 권19, 세조 6年 1月 19日(정유)]

○ 경기우도 역리(驛吏)들이 이윤인(李尹仁)의 관직을 그대로 두기를 청하자 다른 관직에 별도 서용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19, 세조 6年 1月 24日(임인)]

○ 개성부(開城府)에서 흰 평을 바침.

[세조실록 권19, 세조 6年 1月 26日(갑진)]

○ 광주(廣州) 아전 박영(朴榮) 등이 상언하기를 광주 관찰사(觀察使)의 감영(監營)을 혁파하였으니 기녀(妓女)들도 혁파하기를 청하자 허락함.

[세조실록 권19, 세조 6年 1月 27日(을사)]

○ 호조(戶曹)에 전지하여 서울 군자창(軍資倉)의 묵은 쌀 7천 석을 경기에 보내 기민을 진휼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19, 세조 6年 2月 2日(기유)]

○ 경기·강원도 도순찰사(都巡察使) 김순(金淳) 등 대관(臺官)을 여러 도(道)에 보내 비위사실(非違事實)을 검찰토록 하고, 그 사목(事目)을 동봉하여 내림.

[세조실록 권19, 세조 6年 2月 3日(경술)]

○ 호조(戶曹)에서 아뢰기를 경기·강원도에 꾸어 준 군자창(軍資倉)의 곡식을 가을 추수 때까지 거두어들이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19, 세조 6年 2月 4日(신해)]

○ 선위사(宣慰使) 심결(沈決)과 별선위사(別宣慰使) 성임(成任)을 개성부(開城府)에 보냄.

[세조실록 권19, 세조 6年 2月 5日(임자)]

○ 경기관찰사 황효원(黃孝源)이 소 사료인 황두를 청함.

[세조실록 권19, 세조 6年 2月 5日(임자)]

○ 병조(兵曹)에서 여러 도(道)의 역(驛)에 찰방(察訪)을 설치하고, 여러 역을 원근을 헤아려 도(道)를 나누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19, 세조 6年 2月 12日(기미)]

○ 호조(戶曹)에서 경기에 군자미(軍資米)를 보내 진휼하게 하고, 경기·강원도에 봄철 습진(習陣)을 정지하고 구황의 일만 맡기도록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19, 세조 6年 2月 13日(경신)]

○ 병조(兵曹)에서 경기·강원도의 구황을 위한 소금은 경기관찰사가 만호(萬戶)를 보내 조운하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19, 세조 6年 2月 17日(갑자)]

○ 경기관찰사 황효원(黃孝源)이 백성의 진휼에 소홀히 한 양주부사(楊州府使) 김진지(金震知)를 국문할 것을 청하자 홍석(洪錫)을 대신 보내고 김진지를 국문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19, 세조 6年 2月 17日(갑자)]

○ 경기관찰사 등에게 유시하여 명나라 사신 접대시 흉년으로 인하여 물건을 고쳐 쓰도록 당부함.

[세조실록 권19, 세조 6年 2月 20日(정묘)]

○ 병조(兵曹)에서 장단군(長湍郡)의 치소를 도원역(桃源驛)으로 옮기고 그 역을 온신리(溫申里)로 옮기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19, 세조 6年 2月 23日(경오)]

○ 경기·강원도 진휼사(賑恤使) 호조참판(戶曹參判) 김순(金淳)이 와서 복명함.

[세조실록 권19, 세조 6年 2月 26日(계유)]

○ <고양> 벽제역(碧蹄驛)에서 강도 수이(愁伊) 등 6인을 잡아오자 부장(部長) 김일용(金日容) 등을 양주(楊州)·원평(原平) 등지에 보내 나머지 무리를 체포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19, 세조 6年 3月 2日(기묘)]

○ 흠차정사(欽差正使) 예과급사중(禮科給事中) 장녕(張寧) 등이 세자로 하여금 <고양> 벽제역(碧蹄驛)에서 칙서(勅書)를 맞이할 것을 요구하자, 임금이 따를 수 없다고 함.

[세조실록 권19, 세조 6年 3月 5日(임오)]

○ 명(明)나라 사신 등이 <양주> 한강(漢江)을 유람(遊覽)하며 구경하니, 좌의정(左議政) 신숙주(申叔舟) 등에게 명하여 같이 가게 함.

[세조실록 권19, 세조 6年 3月 5日(임오)]

○ 판중추원사(判中樞院事) 김하(金何)를 선위사(宣慰使)로 삼고 우부승지(右副承旨) 김종순(金從舜)을 별선위사(別宣慰使)로 삼아 개성부(開城府)로 보냄.

[세조실록 권19, 세조 6年 3月 10日(정해)]

○ 임금이 명(明)나라 사신을 모화관(慕華館)에서 전별(餞別)하고, 영의정(領議政) 강맹경(姜孟卿) 등이 <고양> 벽제역(碧蹄驛)까지 배웅함.

[세조실록 권19, 세조 6年 3月 14日(신묘)]

○ 호조(戶曹)에서 경기관찰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전라도(全羅道)에서 쌀·황두를 장단(長湍)·양천(陽川) 등지에 조운하여 구휼하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19, 세조 6年 3月 15日(임진)]

○ <양주> 건원릉(健元陵)·<양주> 현릉(顯陵)에 친히 제사지냄.

[세조실록 권19, 세조 6年 3月 16日(계사)]

○ <광주> 헌릉(獻陵)과 <광주> 영릉(英陵)에 제사지내고 사냥을 함.

[세조실록 권20, 세조 6年 4月 1日(정미)]

○ 병조(兵曹)에서 점마별감(點馬別監) 최윤(崔潤)의 계본에 의거하여 양성현(陽城縣) 괴태길곳이[槐台吉串] 소의 숫자를 고찰하고 말의 예에 의거하여 겸감목관(兼監牧官)을 포폄하도록 아뢰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20, 세조 6年 4月 4日(경술)]

○ 동교(東郊)에서 매사냥을 구경하고 경기관찰사 황효원(黃孝源)에게 남색 단의(段衣)를 하사함.

[세조실록 권20, 세조 6年 4月 7日(계축)]

○ <양주> 풍양산(豐壤山)에 거둥하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밤에 환궁(還宮) 함.

[세조실록 권20, 세조 6年 4月 8日(갑인)]

○ 형조(刑曹)에서 개성부유수(開城府留守)의 계본에 의해 개성부의 부족한 시역노비(時役奴婢)를 관사노비·난신노비로써 보충하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20, 세조 6年 4月 20日(병인)]

○ 경기관찰사 황효원(黃孝源), 개성부유수(開城府留守) 권지(權摯) 등이 화위당(華韡堂)에 나가 활쏘는 것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20, 세조 6年 4月 25日(신미)]

○ 경기·강원도·함길도 연도의 수령(守令)·찰방(察訪) 등에게 치서하여 돌아가는 올랑합(兀良哈)을 철저히 보호하기를 당부함.

[세조실록 권20, 세조 6年 5月 3日(무인)]

○ 과천현인(果川縣人)들이 상언하여 금천(衿川)과 거리가 멀고 사객(使客)이 많으니 치소를 과천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허락함.

[세조실록 권20, 세조 6年 5月 14日(기축)]

○ 경기관찰사 등에게 유시하여 파종의 시기를 놓치지 말고 철저히 하기를 당부함.

[세조실록 권20, 세조 6年 6月 4日(기유)]

○ 의금부(義禁府)에 전지하여 외방에 영속한 난신 연좌인을 경기를 제외하고 자원에 따라 양

이하계 함.

[세조실록 권21, 세조 6年 7月 1日(을해)]

○ 경기관찰사 등에게 유시하여 공선(公船)·사선(私船)에게 얻는 어교(魚膠)를 수납하여 바치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21, 세조 6年 7月 1日(을해)]

○ 충청도·경기에 유시하여 조전선(漕轉船)을 만드는 선장(船匠)·목공(木工)을 징발하여 조전선 만드는 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당부함.

[세조실록 권21, 세조 6年 7月 13日(정해)]

○ 예조(禮曹)에서 경기 사전(祀典)에 기재된 명산대천의 기우제에 쓸 향과 축문과 폐백을 보내주고 기도하게 하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21, 세조 6年 8月 4日(정미)]

○ 8도의 관찰사(觀察使)와 개성부유수(開城府留守) 등에게 유시하여 고금의 시문(詩文)을 찾아 보내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21, 세조 6年 8月 24日(정묘)]

○ 호조(戶曹)에서 <지평> 송현(松峴)·용산강(龍山江) 등에 있는 군자감(軍資監)을 판사(判事)가 총괄하여 다스리게 할 것을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21, 세조 6年 9月 22日(을미)]

○ 권지(權摯)를 개성부유수(開城府留守)로 임명함.

[세조실록 권22, 세조 6年 10月 5日(정미)]

○ 대가가 파주(坡州)에 머물렀는데 어실의 밖에서 엿보는 자가 있어 이를 검찰하지 못한 파주목사(坡州牧使) 남윤(南倫) 등을 국문토록 함.

[세조실록 권22, 세조 6年 10月 5日(정미)]

○ 경기관찰사 황효원(黃孝源)이 술을 올림.

[세조실록 권22, 세조 6年 10月 5日(정미)]

○ 개성부유수(開城府留守) 겸 병마절제사(兵馬節制使) 권지(權摯), 강화진첨절제사(江華鎭僉節制使) 정자원(鄭自源)이 군사를 거느리고 대가를 임진도(臨津渡)에서 맞이함.

[세조실록 권22, 세조 6年 10月 6日(무신)]

○ 대가의 영점을 소홀히 한 개성부유수(開城府留守) 권지(權摯)를 의금부(義禁府)에 내림.

[세조실록 권22, 세조 6年 10月 6日(무신)]

○ 대장(大將) 김질(金礪)이 여러 진(鎭) 군사가 군목(軍目)과 맞지 않다 하여 경기관찰사 황효원(黃孝源), 광주진장(廣州鎭將) 유지(庾智), 수원진장(水原鎭將) 최제남(崔悌男)을 국문하기를 청하였으나 이를 용서함.

[세조실록 권22, 세조 6年 10月 7日(기유)]

○ <풍덕> 제릉(齊陵)에 제사하고 <풍덕> 후릉(厚陵) 남산에서 사냥함.

[세조실록 권22, 세조 6年 10月 7日(기유)]

○ 대장(大將) 권공(權恭), 경기관찰사 황효원(黃孝源) 등에게 명하여 얼고 젖은 병사들을 구호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22, 세조 6年 10月 8日(경술)]

○ <개성> 왕륜사(王輪寺)에 거동한 후 송악(松岳)에 올라 고도(故都)를 관망하고 요해지에 방비 시설을 하여 지키게 함.

[세조실록 권22, 세조 6年 11月 1日(계유)]

○ 대가가 <황해도 강음> 금교역(金郊驛)에 이르자 경기관찰사 황효원(黃孝源)·개성부유수(開城府留守) 권지(權摯) 등이 맞이함.

[세조실록 권22, 세조 6年 11月 1日(계유)]

○ 임금이 <개성> 송도(松都)에 이르자 부로(父老)들이 절하며 춤추니, 술과 고기를 내려줌.

[세조실록 권22, 세조 6年 11月 1日(계유)]

○ 임금이 <개성> 경덕궁(敬德宮) 청화정(淸和亭)에 나아가서 여러 재상에게 글을 내려, 황해도와 평안도에 하삼도(下三道) 백성을 옮겨 살게 하고, 송도(松都)부터 평양(平壤)까지 거리의 멀고 가까운 것을 가지고 복호(復戶)와 면세(免稅)의 연한(年限)을 정하라고 함.

[세조실록 권22, 세조 6年 11月 2日(갑술)]

○ 대가가 파주(坡州)에 머뭇.

[세조실록 권22, 세조 6年 11月 3日(을해)]



○ 대가가 <파주> 광탄(廣灘)을 거쳐 밤에 <고양> 벽제역(碧蹄驛)에 이르니, 백관(百官)이 대가를 맞이함. 임금이 정인지(鄭麟趾) 등과 <개성> 송도(松都)와 한양 도읍(漢陽都邑)의 형세를 논함.

[세조실록 권22, 세조 6年 11月 4日(병자)]

○ 경기관찰사 황효원(黃孝源) 등에게 말 1필씩 하사함.

[세조실록 권22, 세조 6年 11月 10日(임오)]

○ 우참찬(右參贊) 성봉조(成奉祖)를 경기에 보내 전품(田品) 등급을 살피게 함.

[세조실록 권22, 세조 6年 11月 17日(기축)]

○ 임금이 <과천> 청계산(淸溪山)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22, 세조 6年 윤 11月 3日(을사)]

○ 호조(戶曹)에서 경기도의 흉년이 심하여 곡식 종자가 부족하니 각품 과전세를 피곡(皮穀)으로 주창(州倉)에 수납하고 하삼도 군수용을 사용 소원에 따라 값아 주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22, 세조 6年 윤 11月 6日(무신)]

○ <과천> 청계산(淸溪山)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22, 세조 6年 윤 11月 6日(무신)]

○ 전라도처치사(全羅道處置使) 봉석주(奉石柱)가 떠나가니, 충훈부(忠勳府)에서는 <양주> 한강(漢江)에서 전송함.

[세조실록 권22, 세조 6年 윤 11月 9日(신해)]

○ 각도 관찰사(觀察使)에게 학교의 권력을 당부함.

[세조실록 권22, 세조 6年 윤 11月 12日(갑인)]

○ 강맹경(姜孟卿)이 진주(晉州)로 향하니, 충훈부(忠勳府)에서는 <양주> 한강(漢江)에서 전송함.

[세조실록 권22, 세조 6年 윤 11月 19日(신유)]

○ 병조(兵曹)에서, 새로 만든 배를 경기·충청도·전라도의 각포(各浦) 선군에게 나누어 붙이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22, 세조 6年 윤 11月 21日(계해)]

○ 사헌부(司憲府)에서 상중(喪中)에 기생과 거처하여 강상(綱常)을 무너뜨린 전 인천군사(仁川郡事) 유효조(柳孝祖)의 과죄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22, 세조 6年 윤 11月 27日(기사)]

○ 경기관찰사 등에게 유시하여 가난한 자의 구휼을 극진히 할 것을 당부함.

[세조실록 권22, 세조 6年 12月 18日(경인)]

○ 병조(兵曹)에서 남양부사(南陽府使)가 관장했던 수원(水原) 양야곶(陽也串) 목장을 수원부사(水原府使)로 하여금 관할하도록 할 것을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22, 세조 6年 12月 25日(정유)]

○ 도적이 <고양> 대자암(大慈庵) 두 불상(佛像)의 복장(腹藏)을 훔쳤으므로, 도성문을 닫고 수색함.

[세조실록 권22, 세조 6年 12月 27日(기해)]

○ 도진무(都鎭撫) 권공(權恭) 등에게 명하여 <고양> 대자암(大慈庵)을 수색하게 하여 도적·중[僧] 등을 잡음.

[세조실록 권22, 세조 6年 12月 28日(경자)]

○ 의금부(義禁府)에 전지(傳旨)하여 <고양> 대자암(大慈庵) 도적인 중[僧] 보명(保明) 등을 잡는 자에게 포상하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23, 세조 7年 1月 24日(을축)]

○ 경기도체찰사(京畿都體察使) 성봉조(成奉祖)로 하여금 진휼사(賑恤使)를 겸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23, 세조 7年 2月 23日(갑오)]

○ 경기도관찰사 이극배(李克培)가 <과천> 양재역(良才驛)·<광주> 낙생역(樂生驛)에 도착한 이주민들의 처리 문제를 아뢰니 남정(男丁)은 배로, 나머지 가족은 육지로 이동시키라고 함.

[세조실록 권23, 세조 7年 2月 23日(갑오)]

○ 평안·황해도 순찰사(巡察使) 한계미(韓繼美) 등에게 유시하여 <과천> 양재역(良才驛) 이남의 여러 역(驛)에 머물러 있는 북쪽으로의 이주민을 수로를 통해 황해도로 이주시켜 포치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23, 세조 7年 2月 28日(기해)]

○ 경기·개성부 등의 군사를 징발하여 살곶이[箭串] 들에 모이게 하고 한명회(韓明澮)를 수대장(守大將)으로 삼음.

[세조실록 권23, 세조 7年 2月 29日(경자)]

○ 어가가 미사리(彌沙里) 들에 이르니 경기관찰사 이극배(李克培), 양주부사(楊州府使) 경유근(慶由謹) 등이 매와 개를 바치고, <양주> 녹양평(綠楊平)에서 사냥하고 포천(抱川)에서 머뭍.

[세조실록 권23, 세조 7年 2月 30日(신축)]

○ 임금이 <포천> 왕방산(王方山)에 이르러 사냥함.

[세조실록 권23, 세조 7年 3月 1日(임인)]

○ 어가가 울장(栗長)에 이르자 가평현감(加平縣監) 안숙손(安叔孫)이 문안하고, 저녁에 연동역(連洞驛)에 머뭍.

[세조실록 권23, 세조 7年 3月 1日(임인)]

○ 경기도체찰사(京畿都體察使) 성봉조(成奉祖) 등이 문안함.

[세조실록 권23, 세조 7年 3月 3日(갑진)]

○ 경기관찰사 이극배(李克培)가 강무(講武)시 상정한 숫자보다 많이 진공한 일로 추핵하라고 전교하였으나, 승정원(承政院)이 국문하지 말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23, 세조 7年 3月 4日(을사)]

○ 인수부윤(仁壽府尹) 윤자운(尹子雲)을 경기·충청·전라·경상도 도순찰사(都巡察使)로 임명함.

[세조실록 권23, 세조 7年 3月 4日(을사)]

○ 경기도체찰사(京畿都體察使) 성봉조(成奉祖)가 경기도에 부족한 양곡을 충청도 미곡을 운반하여 진휼하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23, 세조 7年 3月 9日(경술)]

○ 각도 관찰사(觀察使)에게 유시하여 공물(貢物) 대납(代納)으로 민폐를 끼침이 없도록 할 것을 명함.

[세조실록 권23, 세조 7年 3月 18日(기미)]

○ <양주> 아차산(峨嵯山)과 <양주> 묘적산(妙寂山)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23, 세조 7年 3月 20日(신유)]

○ 호조(戶曹)에 전교하여 <양주> 묘적산(妙寂山)에서 사냥을 구경할 때 빗나간 화살에 맞아 죽은 여흥(驪興) 사람 고읍동(古邑同) 등에게 부의를 내려주라고 함.

[세조실록 권23, 세조 7年 3月 20日(신유)]

○ 의금부(義禁府)에 전지하여 <양주> 묘적산(妙寂山)에서 사냥할 때 화살을 잘못 쏘아 사람을 죽게 한 내금위(內禁衛)의 조한신(曹漢臣) 등을 추핵하여 아뢰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23, 세조 7年 3月 22日(계해)]

○ 병조판서(兵曹判書) 한명회(韓明澮)에게 명하여 경기의 고양(高陽) 제언을 살펴보게 함.

[세조실록 권24, 세조 7年 4月 4日(갑술)]

○ 교서관(校書館)의 종[奴] 금음동(今音同)과 양현고(養賢庫)의 종 백동(白同)이 <양주> 천마산(天磨山)의 절에 있는 불경을 도둑질하다가 산지기에게 잡힘.

[세조실록 권24, 세조 7年 4月 11日(신사)]

○ 경기관찰사 이극배(李克培)가 김포현(金浦縣) 곽포(乞浦)의 묵은 전지를 근방의 소 있는 자를 징발하여 갈게 할 것을 청함.

[세조실록 권24, 세조 7年 4月 11日(신사)]

○ 대사헌(大司憲) 이교연(李皎然)이 아우 천녕현감(川寧縣監) 이비연(李賁然)을 따라간 어머니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음.

[세조실록 권24, 세조 7年 4月 15日(을유)]

○ 홍달손(洪達孫)을 남양부원군(南陽府院君)으로 삼음.

[세조실록 권24, 세조 7年 4月 15日(을유)]

○ 전제상정소(田制詳定所)에서 전답을 측량하는 필요사항을 여러 도(道)에서 미리 준비하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24, 세조 7年 5月 9日(무신)]

○ 의금부(義禁府)에서 개성부(開城府) 근처의 여러 절에서 불경을 도둑질한 김말생(金末生) 등에게 율에 따라 죄주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24, 세조 7年 5月 12日(신해)]

○ 경기·충청·전라·경상도 도순찰사(都巡察使) 윤자운(尹子雲)에게 유시하여 금년 이사시키는 백성은 3백 호를 넘지 말게 함.

[세조실록 권24, 세조 7年 6月 26日(을미)]

○ 호조(戶曹)에 전지하여 강원도 회양(淮陽)에서 경기 양주(楊州)에 이르는 길가의 고을을 임오년(壬午年)을 한하여 공물을 면제하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25, 세조 7年 7月 3日(신축)]

○ 사헌부(司憲府)에서 아뢰기를 부평부사(富平府使) 기질(奇質)의 첩 아들 기중산(奇仲山)의 막내아들인 기보(奇寶)의 승중(承重) 문제를 아뢰자 기중산으로 하여금 승중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25, 세조 7年 7月 10日(무신)]

○ 경기·함길·강원도 길 연변 수령(守令)과 역(驛) 찰방(察訪)에게 치서하기를 지금 가는 을적합(兀狹哈) 아인첩목가(阿仁帖木加) 등을 후대하라고 함.

[세조실록 권25, 세조 7年 7月 24日(임술)]

○ 예빈시윤(禮賓寺尹) 안훈(安訓)을 경기도 보내는 등 각도에 사람을 보내 호적(戶籍)과 군적(軍籍)을 개정하게 하고 그 사목(事目)을 줌.

[세조실록 권25, 세조 7年 8月 8日(을해)]

○ 좌찬성(左贊成) 황수신(黃守身) 등이 <광주> 삼전도(三田渡)와 <양주> 아차산(峨嗟山)이 목장터로 좋지 않다 하여 임금이 다른 곳을 구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25, 세조 7年 8月 9日(병자)]

○ 유지(庾智)를 광주목사(廣州牧使)로 삼음.

[세조실록 권25, 세조 7年 8月 11日(무인)]

○ 병조(兵曹)에서 아뢰기를 함길도 사민(徙民) 이동시 세 길로 나누어 보내고 연도 고을로 하여금 교초(菱草)·시탄(柴炭) 등을 준비하기를 청함.

[세조실록 권25, 세조 7年 8月 19日(병술)]

○ 품질이 나쁜 송이버섯을 올린 개성유수(開城留守) 권지(權摯)를 파직하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25, 세조 7年 8月 20日(정해)]

○ 이교연(李皎然)을 개성유수(開城留守)로 삼음.

[세조실록 권25, 세조 7年 9月 3日(경자)]

○ 병조(兵曹)에서 <광주> 삼전도(三田渡)의 옛 목장(牧場)을 개간하지 못하게 하자고 청하니,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25, 세조 7年 9月 4日(신축)]

○ 좌찬성(左贊成) 구치관(具致寬) 등을 <광주> 영릉(英陵)의 수축(修築)한 곳을 가서 살펴계 함.

[세조실록 권25, 세조 7年 9月 27日(갑자)]

○ 이석형(李石亨)을 경기도관찰사로 삼음.

[세조실록 권26, 세조 7年 10月 2日(무진)]

○ 신숙주(申叔舟)가 경기·충청도 여러 포(浦)의 조선(漕船)과 병선(兵船)을 겸용하도록 제조하기를 청하자 이를 윤택함.

[세조실록 권26, 세조 7年 10月 10日(병자)]

○ 풍양(豐壤)에서 강무(講武)를 하니 경기도관찰사 이석형(李石亨)이 와서 영접함.

[세조실록 권26, 세조 7年 10月 23日(기축)]

○ 사헌부(司憲府)에서 충청도·경기·전라도·경상도 등지에 분대(分臺)를 보내어 법에 어긋난 일을 감찰·핵문하기를 청하자 나누어 보낼 필요가 없다고 답함.

[세조실록 권26, 세조 7年 10月 28日(갑오)]

○ <양주> 건원릉(健元陵)과 <양주> 현릉(顯陵)에 제사지냄.

[세조실록 권26, 세조 7年 10月 29日(을미)]

○ <광주> 현릉(獻陵)과 <광주> 영릉(英陵)에 제사(祭祀)하려 하였는데, 비가 오자 정지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26, 세조 7年 11月 4日(경자)]

○ 개성부(開城府) 관리를 탄핵하라는 명을 시행하지 않은 장단군사(長湍郡事) 송숙기(宋叔琪)를 국문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26, 세조 7年 11月 18日(갑인)]

○ 사복시(司僕寺) 제조(提調)가 경기 장단(長湍) 호곶목장(壺串牧場)에 목마군(牧馬軍)을 두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26, 세조 7年 12月 6日(임신)]

○ 왕세자빈의 상장(喪葬)을 의논하고 수원부사(水原府使) 민효열(閔孝悅)로 하여금 염빈(斂殮)하는 일을 주관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26, 세조 7年 12月 14日(경진)]

○ 경기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빙고(氷庫)에 저장할 얼음을 잘 갈무리하고 수량을 보고하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26, 세조 7年 12月 21日(정해)]

○ 정인지(鄭麟趾) 등으로 하여금 고양현(高陽縣)에 가서 빈(嬪)의 장지(葬地)를 살펴보게 함.

[세조실록 권26, 세조 7年 12月 22日(무자)]

○ 김사우(金師禹)를 경기순찰사로, 황효원(黃孝源)을 부사(副使)로 삼아 광주(廣州)·도미(渡迷)·월계(月溪) 등지로 가서 얼음을 갈무리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26, 세조 7年 12月 24日(경인)]

○ 장빙사(藏氷使) 김사우(金師禹)가 도미(渡迷)의 빙실(氷室)을 평지에 건축할 것을 치서하고 경기도관찰사에 치서하여 군인들을 징발하여 얼음 갈무리하는 곳에 보내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26, 세조 7年 12月 26日(임진)]

○ 선전관(宣傳官) 김효조(金孝祖)를 장단(長湍)에 보내 얼음의 두께를 살피게 하고, 사복판관(司僕判官) 유권(柳暉)을 광주(廣州)에 보내 얼음을 갈무리하는 군인의 수를 검찰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27, 세조 8年 1月 2日(정유)]

○ 정인지(鄭麟趾)·정창손(鄭昌孫) 등에게 명해 <양주> 풍양(豐壤) 등지에 가서 장지(葬地)를 상지(相地)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27, 세조 8年 1月 4日(기해)]

○ 임금이 고양(高陽) 뒤의 고개에 거둥하여 장지를 살펴보고, 다시 정인지(鄭麟趾) 등을 파주(坡州)로 보내 강희백(江淮伯)의 어머니 무덤을 살펴보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27, 세조 8年 1月 10日(을사)]

○ 호조(戶曹)에 전지(傳旨)하여 <양주> 건원릉(健元陵)과 <양주> 현릉(顯陵)에 제사지내려 하니 <양주> 개경사(開慶寺)에 곡식을 주게 함.

[세조실록 권27, 세조 8年 1月 16日(신해)]

○ 유구국(琉球國)의 사신 보수고(普須古) 등이 하직하고 돌아가니, 예조판서(禮曹判書) 홍윤성(洪允成)에게 명하여 <양주> 한강(漢江)에서 전송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27, 세조 8年 1月 25日(경신)]

○ 양주(楊州)의 홍복사(洪福寺) 등지에 거둥하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27, 세조 8年 2月 3日(무진)]

○ 남양부원군(南陽府院君) 홍달손(洪達孫) 등을 불러 갑사(甲士)·정병(正兵)들의 번상을 의논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27, 세조 8年 2月 4日(기사)]

○ 호조(戶曹)에 전지하여 양주(楊州)·풍덕(豐德) 경내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본래 정한 농군의 수에 의하여 역사토록 함.

[세조실록 권27, 세조 8年 2月 25日(경인)]

○ 병조(兵曹)에서 번상과 여러 도(道)에 습진(習陣)할 군사 정원을 뽑는 절차를 마련하여 아킴.

[세조실록 권27, 세조 8年 2月 25日(경인)]

○ 장순빈(章順嬪)을 파주(坡州)에 장사지냄.

[세조실록 권27, 세조 8年 2月 30日(을미)]

○ 호조(戶曹)에서 부족한 배를 만들기 위하여 가평현(加平縣) 등 재목을 낼 곳과 배를 만드는 조건을 아뢰자,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28, 세조 8年 3月 7日(임인)]

○ 광주목사(廣州牧使) 유지(庾智), 여흥부사(驪興府使) 이순백(李淳白), 포천현감(抱川縣監) 하맹순(河孟詢), 천녕현감(川寧縣監) 이비연(李賁然), 과천현감(果川縣監) 최계남(崔季男), 지평현감(砥平監) 이운봉(李芸奉) 등을 1자급 강등함.

[세조실록 권28, 세조 8年 3月 9日(갑진)]



○ 전제상정소(田制詳定所)에서 경기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경기의 양주(楊州)·양근(楊根)·지평(砥平)·영평(永平)·가평(加平)·포천(抱川)·연천(漣川)·마전(麻田)·적성(積城)·삭녕(朔寧)·장단(長湍)·파주(坡州)·광주(廣州) 등지의 면세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28, 세조 8年 3月 10日(을사)]

○ <광주> 헌릉(獻陵)과 <광주> 영릉(英陵)에 제사지내고, 청계산(淸溪山)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28, 세조 8年 3月 17日(임자)]

○ 임금이 왕세자(王世子)와 더불어 <양주> 녹양평(綠楊平)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28, 세조 8年 3月 20日(을묘)]

○ <양주> 조곡산(早谷山)에 거둥하고 망율이(亡兀伊) 후평(後平)에서 술자리를 베풀.

[세조실록 권28, 세조 8年 3月 30日(을축)]

○ 경기경력(京畿經歷) 최준(崔濬)이 야인들이 하사받은 물품을 포천(抱川)에서 빼앗긴 일을 아뢰자 본색을 갖추어 주도록 하고, 이계손(李繼孫)에게 도둑을 잡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28, 세조 8年 4月 4日(기사)]

○ 예조(禮曹)에서 <양주> 회암사(檜巖寺)를 중수하는데 부역하여 도첩(度牒)을 준 자가 1만 5천 2백 74명이 되는 등 도첩 승인이 많아 폐단이 커지니 상직(賞職)으로 대신하자 청하니, 임금이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28, 세조 8年 4月 5日(경오)]

○ 경기·충청도의 관찰사(觀察使)에게 전지하여 연풍(延豐) 온정에서 목욕하는 양녕대군(讓寧大君) 이제(李禔)를 마음을 다하여 지대하도록 명함.

[세조실록 권28, 세조 8年 4月 7日(임신)]

○ 관리를 경기·충청도 등지에 보내어 소나무 벌채를 금지한 일을 살피도록 승정원(承政院)에 전교함.

[세조실록 권28, 세조 8年 4月 17日(임오)]

○ 경기도 분순어사(分巡御史) 이영은(李永垠) 등을 각도에 파견하여 관리들을 규찰하여 살필 사목(事目)을 내림.

[세조실록 권28, 세조 8年 4月 18日(계미)]

○ 내잠실(內蠶室)·외잠실(外蠶室)과 <양주> 아차산(峨嵯山) 잠실에서 각각 새 고치를 바쳤는데, 외잠실이 가장 많았음.

[세조실록 권28, 세조 8年 4月 22日(정해)]

○ 어가가 <광주> 삼전도(三田渡) 냇가에 가서 술자리를 베풀고, 좌상대장(左廂大將)·우상대장(右廂大將)에게 명하여 형명(形名)을 써서 군사(軍士)를 쓰는 절도(節度)를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28, 세조 8年 5月 1日(을미)]

○ 경기도관찰사 이석형(李石亨) 등에게 유시하여 경차관(敬差官) 등이 호적을 만드는 능부(能否)를 상고토록 함.

[세조실록 권28, 세조 8年 5月 6日(경자)]

○ 한명회(韓明澮)가 남양(南陽)의 장인을 근친하려고 하직하자 경기관찰사에게 유시하여 민대생(閔大生)의 집에 잔치를 내려줌.

[세조실록 권28, 세조 8年 5月 21日(을묘)]

○ 조모(祖母)의 대상(大祥)으로 경기 풍덕군(豐德郡)에 간 병조판서(兵曹判書) 윤자운(尹子雲)에게 전물을 갖추어 주라고 경기관찰사에게 치서함.

[세조실록 권28, 세조 8年 6月 12日(을해)]

○ 경기분대장령(京畿分臺掌令) 이영은(李永垠)이 죄인을 잘못 국문한 일로 대죄를 청하자 개차토록 함.

[세조실록 권28, 세조 8年 6月 14日(정축)]

○ 사헌부(司憲府)가 처남의 처와 간통하고 아내로 삼은 김포인(金浦人) 검호군(檢護軍) 최부(崔富)의 고신을 거두고 가족을 평안도 강계부(江界府)에 옮기도록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28, 세조 8年 7月 9日(임인)]

○ 병조(兵曹)에서 포폄이 없는 경기좌우도 등의 포폄을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29, 세조 8年 8月 6日(무진)]

○ 예조(禮曹)에서 <개성> 목청전(穆淸殿) 등 각도 어용전(御容殿)을 수직(守直)하는데 있어 근방의 양민 20명을 뽑아서 번(番)을 나눠 담당하게 하자고 아뢰니,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29, 세조 8年 8月 7日(기사)]

○ 이극배(李克培)를 광릉군(廣陵君)으로, 김종순(金從舜)을 중추원부사(中樞院副使) 경기도 관찰사로 삼음.

[세조실록 권29, 세조 8年 9月 3日(갑오)]

○ 각도 관찰사(觀察使)에게 금송(禁松)의 법을 어긴 자를 추핵하지 않으면 논죄할 것임을 어찰(御札)을 내려 유시함.

[세조실록 권29, 세조 8年 9月 9日(경자)]

○ 도승지(都承旨) 홍응(洪應)을 보내어 <광주> 영릉(英陵)을 봉심(奉審)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29, 세조 8年 9月 10日(신축)]

○ 기로재추(耆老宰樞)에게 <양주> 홍제원(洪濟院)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고, 술과 풍악을 내려줌.

[세조실록 권29, 세조 8年 9月 19日(경술)]

○ <양주> 녹양평(綠陽平)에 거둥하여 사냥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29, 세조 8年 9月 28日(기미)]

○ 어가가 연천현(漣川縣) 가아평(加兒平)에 이르러 사냥을 구경하고 송절원평(松折院平)에 머물.

[세조실록 권29, 세조 8年 10月 2日(계해)]

○ 경기경력(京畿經歷) 최준(崔濬) 등이 문안함.

[세조실록 권29, 세조 8年 10月 3日(갑자)]

○ 영평현(永平縣) 굴동(堀洞)에 머물.

[세조실록 권29, 세조 8年 10月 4日(을축)]

○ 영평(永平) 보장산(寶藏山) 사장(射場)에 이르러 사냥을 구경하고 영평현 앞 들에 머물.

[세조실록 권29, 세조 8年 10月 5日(병인)]

○ <포천> 왕방산(王方山) 사장(射場)에 이르러 사냥을 구경하고, 재추(宰樞)에게 노루와 사슴 및 술을 내려줌.

[세조실록 권29, 세조 8年 10月 6日(정묘)]

○ 사냥을 구경하고 돌아오다 <양주> 녹양평(綠楊平)에 이르니 백관(百官)이 용복(戎服) 차림으로 와서 맞이하고, 우이동(牛耳洞) 앞 언덕에 이르니 왕세자가 와서 알현함.

[세조실록 권29, 세조 8年 10月 11日(임신)]

○ 도체찰사(都體察使)와 각도 관찰사(觀察使)·절제사(節制使)·처치사(處置使)에게 병정(兵正)의 징병에 쓰지 않는 호부(號符)를 올려 보내도록 유시함.

[세조실록 권29, 세조 8年 10月 13日(갑술)]

○ 최유(崔濡)를 개성군(開城君)으로 삼음.

[세조실록 권29, 세조 8年 10月 13日(갑술)]

○ 사옹별좌(司饗別坐) 허준(許峻)을 경기에, 종부시(宗簿寺) 주부(主簿) 박계금(朴繼金)을 개성부(開城府) 등지에 보내 발병부(發兵符)를 주어 징병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29, 세조 8年 10月 26日(정해)]

○ 강무(講武)를 하려고 징발한 개성부(開城府)와 충청도 군사들이 살곳이[箭串] 뜰에 이룸.

[세조실록 권29, 세조 8年 10月 27日(무자)]

○ 임금과 중궁이 어가로 거둥하여 양주(楊州) 달천(達川)에 이르러 종친과 재추(宰樞)들에게 술자리를 베풀.

[세조실록 권29, 세조 8年 10月 28日(기축)]

○ 어가가 용진(龍津) 부교(浮橋)를 건너 양근(楊根) 용두(龍頭)에 이르자 뇌우(雷雨)가 내림.

[세조실록 권29, 세조 8年 10月 29日(경인)]

○ 어가가 <지평> 미지산(彌智山) 상원사(上元寺)에 거둥하고, 밤에 효령대군(孝寧大君) 이보(李補)의 농장에 머물.

[세조실록 권29, 세조 8年 11月 1日(신묘)]

○ 어가가 <지평> 용문사(龍門寺)에 거둥하였다가 저녁에 발산(鉢山)에서 머물.

[세조실록 권29, 세조 8年 11月 3日(계사)]

○ 어가가 양주(楊州) 월개천(月介川)에 머물.

[세조실록 권29, 세조 8年 11月 4日(갑오)]

○ 어가가 양주(楊州) 유포(柳浦)에 이르자 전 첨지중추원사(僉知中樞院事) 김자갱(金子鏗)이 홍시를 올림.

[세조실록 권29, 세조 8年 11月 5日(을미)]

○ 양주(楊州) 대방동(大方洞)에 이르러 사냥을 구경하고 환궁함.

[세조실록 권30, 세조 9年 1月 9日(기해)]

○ 우찬성(右贊成) 구치관(具致寬)의 건의로 경기 백성들에게 대창(大倉)을 구축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30, 세조 9年 1月 10日(경자)]

○ 성균사에(成均司藝) 구달충(具達忠)이 양근(楊根)의 큰 여울에 적석(積石)이 있어 선행(船行)하는데 방해가 되니 깨어 버리기를 청하자, 이를 윤택하였지만 깨지 못함.

[세조실록 권30, 세조 9年 1月 19日(기유)]

○ 의금부(義禁府)에 양주(楊州)에 부처한 황보인(皇甫仁)의 사위 권은(權崐)을 방면하라고 전지함.

[세조실록 권30, 세조 9年 1月 28日(무오)]

○ 강이관(講肄官) 노삼(魯參)이 중국의 함지(鹹地)에서 경작하는 벼종자를 바치자, 경기관찰사에게 치서하여 연해의 각읍에 파종하고 가을에 아뢰라고 명함.

[세조실록 권30, 세조 9年 1月 28日(무오)]

○ 사헌부(司憲府)에서 전 경기찰방(京畿察訪) 이소생(李紹生)이 토색질한 물건을 몰수할 것을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30, 세조 9年 1月 28日(무오)]

○ 이조(吏曹)의 건의로 가정대부(嘉靖大夫) 이하의 개성유수(開城留守)는 서차를 한성부윤(漢城府尹) 아래에 두게 함.

[세조실록 권30, 세조 9年 2月 6日(을축)]

○ 양주(楊州) 토지산(兔只山)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30, 세조 9年 2月 18日(정축)]

○ 청계산(淸溪山)에서 강무하자 경기관찰사가 선물(贈物)을 올림.

[세조실록 권30, 세조 9年 2月 18日(정축)]

○ 광주목사(廣州牧使) 조지하(趙之夏), 판관(判官) 양자순(楊子淳), 금천현감(衿川縣監) 최계남(崔季男)이 와서 숙배함.

[세조실록 권30, 세조 9年 3月 13日(임인)]

○ <양주> 녹양목장(綠楊牧場)의 말 4필이 범에게 물리자, 임금이 명하여 <양주> 수락산(水落山)에서 몰이하여 범을 잡음.

[세조실록 권30, 세조 9年 3月 14日(계묘)]

○ 경기·충청·전라도·개성부와 각도 찰방(察訪)에게 편거(偏車) 두 개씩을 보내어 모양에 따라 조작하여 흥용(興用)하라고 치서함.

[세조실록 권30, 세조 9年 4月 22日(신사)]

○ 남양부(南陽府)에 살고 있는 민대생(閔大生)이 경기관찰사가 위연(慰宴)한 일로 예궐하여 사은함.

[세조실록 권30, 세조 9年 4月 24日(계미)]

○ 개성부(開城府) 연복사(衍福寺)의 중이 좁쌀을 사리(舍利)라고 바치고 도망감.

[세조실록 권30, 세조 9年 5月 2日(경인)]

○ 남양부원군(南陽府院君) 홍달손(洪達孫), 개성군(開城君) 최유(崔濡) 등이 입시하자 술자리를 베풀.

[세조실록 권30, 세조 9年 5月 8日(병신)]

○ 영의정(領議政) 신숙주(申叔舟), 남양부원군(南陽府院君) 홍달손(洪達孫) 등이 입시하자 주연을 베풀.

[세조실록 권30, 세조 9年 5月 19日(정미)]

○ 궐내제색(闕內諸色)을 <양주> 한강(漢江)에서 채금(採金)하게 하고, 먼저 금을 얻어 바친 사노(私奴) 안지(安智)에게 사약(司鑰)을 제수함.

[세조실록 권30, 세조 9年 5月 30日(무오)]

○ 개성군(開城君) 최유(崔濡) 등이 입시하자 술자리를 베풀.

[세조실록 권30, 세조 9年 6月 12日(경오)]

○ 정업원(淨業院) 주지 해민(海敏)이 경기 고양(高陽)의 정수암(淨水庵)을 강도가 겁탈하였다고 아뢰자 군사를 보내 한성부(漢城府)와 고양현(高陽縣)에 명하여 수색하여 잡게 함.

[세조실록 권30, 세조 9年 6月 13日(신미)]

○ 분경(奔競) 금지령을 어긴 경기좌도 찰방(察訪) 김이(金理)를 사헌부(司憲府)가 죄를 핵실하였으나 불복함.

[세조실록 권30, 세조 9年 6月 14日(임신)]

○ 경기관찰사 김종순(金從舜)이 본도의 여러 읍에 강도가 흥행하여 경중(京中)의 군사를 요청하자, 군사를 경기도의 양주(楊州)·광주(廣州)·양근(楊根)·지평(砥平)·천녕(川寧) 등지에 보내 잡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30, 세조 9年 6月 21日(기묘)]

○ 공조좌랑(工曹佐郎) 권필(權必)을 경기 양근(楊根)에 보내 채금(採金)하는 것을 감독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30, 세조 9年 7月 6日(계사)]

○ 함우치(咸禹治)를 개성부유수(開城府留守)로, 권개(權愷)를 경기도관찰사로 삼음.

[세조실록 권30, 세조 9年 윤 7月 7日(갑자)]

○ 남양부원군(南陽府院君) 홍달손(洪達孫) 등에게 주연을 베풀.

[세조실록 권31, 세조 9年 윤 7月 10日(정묘)]

○ 각도 관찰사(觀察使)와 개성부유수(開城府留守)에게 뱀에 물린데 효과가 있는 관음초(觀音草)와 토우(土芋)의 용법을 민간에 두루 행하도록 효유함.

[세조실록 권31, 세조 9年 윤 7月 13日(경오)]

○ 우의정(右議政)으로 치사한 광주인(廣州人) 이인손(李仁孫)이 졸(卒)함.

[세조실록 권31, 세조 9年 8月 3日(기축)]

○ 서교(西郊)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, <양주> 연희궁(衍禧宮) 앞에서 몰이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31, 세조 9年 8月 15日(신축)]

○ <광주> 헌릉(獻陵)과 <광주> 영릉(英陵)에 제사지냄.

[세조실록 권31, 세조 9年 8月 15日(신축)]

○ 임금이 걸어서 <광주> 헌릉(獻陵)에서 <광주> 영릉(英陵)의 신문(神門) 밖으로 나아갈 때, 예를 범한 감찰(監察) 임택(任擇)을 꾸짖음.

[세조실록 권31, 세조 9年 8月 20日(병오)]

○ 황해도관찰사(黃海道觀察使)가 <강음> 금교역(金郊驛)의 누각(樓閣)을 새로 지을 것을 청하였으나, 임금이 <양주> 홍제원(洪濟院)의 제천정(濟川亭)과 같이 누각을 지어 재력을 허비하는 것은 그릇되다 하며 허락하지 아니함.

[세조실록 권31, 세조 9年 8月 24日(경술)]

○ 호랑이가 <양주> 녹양목장(綠楊牧場)의 말을 물었다는 소문을 듣고, <양주> 오봉산(五峯山)·<양주> 수락산(水落山) 두 산에서 몰이함.

[세조실록 권31, 세조 9年 9月 18日(갑술)]

○ 서산(西山)에 거둥하여 사냥하던 중 군율을 어긴 자들을 하옥하고, <과천> 미륵원(彌勒院) 마을에 이르러 한 민가(民家)에서 도둑 4인을 체포하여 의금부(義禁府)에 넘김.

[세조실록 권31, 세조 9年 9月 23日(기묘)]

○ 경기관찰사를 지낸 우찬성(右贊成) 이승손(李承孫)이 졸(卒)함.

[세조실록 권31, 세조 9年 9月 27日(계미)]

○ <지평> 상원사(上元寺)의 중[僧]이 불상을 안치해 줄 것을 상언하였으나, 임금이 허락하지 않음.

[세조실록 권31, 세조 9年 10月 4日(기축)]

○ 어가가 위동(葦洞)에 거둥하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, 남양부원군(南陽府院君) 홍달손(洪達孫) 등에게 사슴을 하사함.

[세조실록 권31, 세조 9年 10月 25日(경술)]

○ 임금이 원손(元孫)을 위하여 <양주> 개경사(開慶寺) 부근의 땅을 상지(相地)하라 했다가, 다시 <고양> 정인사(正因寺) 의경세자(懿敬世子)의 묘(墓) 영역 안에다 땅을 고르게 함.

[세조실록 권31, 세조 9年 10月 29日(갑인)]

○ 영순군(永順君) 이부(李溥) 등에게 <고양> 정인사(正因寺)에 가서 원손(元孫)의 장지(葬地)를 상지(相地)하게 함.



[세조실록 권31, 세조 9年 11月 6日(경신)]

○ 원손(元孫)을 고양현(高陽縣)의 의경세자(懿敬世子)의 묘 동쪽 가까운 땅에 장사지냄.

[세조실록 권31, 세조 9年 11月 13日(정묘)]

○ <양주> 아차산(峨嵯山)에 거둥하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31, 세조 9年 12月 18日(임인)]

○ <양주> 아차산(峨嵯山)에서 망을리(亡兀里) 고개에 거둥하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31, 세조 9年 12月 24日(무신)]

○ 겸사복(兼司僕) 한봉운(韓奉運) 등을 보내 광주(廣州)의 남양(南陽) 등지에서 호랑이를 잡게 함.

[세조실록 권32, 세조 10年 1月 8日(신유)]

○ 군기감(軍器監) 제조(提調)가 개성부(開城府)의 분군기감(分軍器監)이 오래 되었으니 군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아뢰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32, 세조 10年 1月 12日(을축)]

○ 예조(禮曹)에서 아뢰어 <지평> 송현(松峴) 등의 분군자감(分軍資監)과 서강(西江)의 분광흥창(分廣興倉)에서 봉사(奉使)의 인(印)을 사용하여 전곡(錢穀)을 출납하는데, 간계와 거짓이 있을까 염려되므로 봉사인을 환수하여 예조에서 관리할 것을 청하니, 임금이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32, 세조 10年 1月 23日(병자)]

○ 호조(戶曹)에서 강변에 노적된 경기의 김포(金浦)·통진(通津)의 국둔전(國屯田)에서 생산된 도직(稻稷)을 경강(京江)에 조운하여 베[布]와 바꾸게 할 것을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32, 세조 10年 2月 17日(경자)]

○ 병조(兵曹)에서 함길도에 부방한 강원도·경기도·황해도의 향리에 대해 3년을 한정하여 향역(鄕役)을 면제하고 부방할 것을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32, 세조 10年 2月 18日(신축)]

○ 어가가 온양(溫陽) 행행(行幸)길에 광주(廣州) 문현산(門懸山)에 이르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32, 세조 10年 2月 19日(임인)]

○ 어가가 죽산(竹山) 연방(蓮坊)에 머뭇.

[세조실록 권32, 세조 10年 2月 20日(계묘)]

○ 경기관찰사 권개(權愷)가 술을 올림.

[세조실록 권32, 세조 10年 2月 21日(갑진)]

○ 정조사(正朝使) 김계박(金繼朴)이 중국 황제의 부음을 전하자 경기·황해·평안도의 백성들에게 3일간 소복을 입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32, 세조 10年 2月 23日(병오)]

○ 영중추원사(領中樞院事) 심희(沈滄)를 개성부(開城府)에 보내 사신을 선위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32, 세조 10年 3月 11日(갑자)]

○ 지리학(地理學) 최양선(崔楊善)이 상서하여 <광주> 천천현로(穿天峴路)를 막도록 청하자, 임금이 그 의견에 따름.

[세조실록 권32, 세조 10年 3月 11日(갑자)]

○ 경기·황해·평안도의 관찰사(觀察使)에게 사신이 관내에 이르면 소재지 수령(守令)들이 예를 다하여 접대하도록 할 것을 치서함.

[세조실록 권32, 세조 10年 3月 15日(무진)]

○ 공조판서(工曹判書) 김수온(金守溫)이 면직을 청하는 상서를 올리고 <양주> 회암사(檜巖寺)에 이르렀다가 얼마 안되어 되돌아왔으므로, 사람들이 집심(執心)이 굳지 못한 것을 조롱함.

[세조실록 권32, 세조 10年 3月 16日(기사)]

○ <안산> 광덕산(廣德山)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는데, 문과(文科)와 무과(武科)로 하여금 호종(扈從)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32, 세조 10年 3月 20日(계유)]

○ <과천> 청계산(淸溪山)에서 사냥하고 저녁에 천천(穿川)에 머뭇.

[세조실록 권33, 세조 10年 4月 24日(병오)]

○ 가뭄이 몇 달 계속되었으며, 경기의 고을들이 더욱 심함.

[세조실록 권33, 세조 10年 4月 26日(무신)]

○ 경기관찰사에게 치서하여 의누이와 사통한 죽산현(竹山縣) 죄수 안유손(安有孫)을 추국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33, 세조 10年 4月 28日(경술)]

○ 경기·충청·전라·경상도 도순찰사(都巡察使) 윤자운(尹子雲)이 여러 도의 절제사(節制使)에게 연대(煙臺)를 순찰, 조사하여 아뢰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33, 세조 10年 4月 29日(신해)]

○ 중사(中使) 이존(李存)을 경기에 보내어 처녀를 간택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33, 세조 10年 5月 2日(갑인)]

○ <양주> 회암사(檜巖寺)에서 효령대군(孝寧大君)이 원각법회(圓覺法會)를 베푸니, 여래(如來)가 현상(現相)하고 감로(甘露)가 내렸으므로, 임금(世宗)이 다시 흥복사(興福寺)를 세워서 원각사(圓覺寺)로 삼을 것을 명함.

[세조실록 권33, 세조 10年 5月 3日(을묘)]

○ 흥복사(興福寺)에 거동하여 남양부원군(南陽府院君) 홍달손(洪達孫) 등과 원각사(圓覺寺) 창건에 관한 일을 의논함.

[세조실록 권33, 세조 10年 5月 10日(임술)]

○ <양주> 회암사(檜巖寺)에서 분신사리(分身舍利)를 바치니, 감옥에 갇혀 있던 관리(官吏)를 용서함.

[세조실록 권33, 세조 10年 5月 11日(계해)]

○ 우승지(右承旨) 이과(李坡)를 개성부(開城府)에 보내 명나라 사신을 선위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33, 세조 10年 5月 16日(무진)]

○ 내시부사(內侍府事) 이중근(李重斤)이 왕명을 받들고 <양주> 한강(漢江)에서 마노석(瑪瑙石)을 주었는데 여흥(驪興)에 이르러 폐(弊)를 끼치니, 임금이 안핵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33, 세조 10年 5月 20日(임신)]

○ 임금이 관반(館伴)에게 전지(傳旨)하여 중국 사신들이 <양주> 한강(漢江)을 유람하고자 하면 한강뿐만 아니라 교외에 있는 강산을 마음대로 유람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33, 세조 10年 5月 26日(무인)]

○ 호랑이가 <양주> 녹양목장(綠楊牧場)에 들어와서 말을 상하게 하니, 임금이 녹양평(綠楊平)에 거둥하여 호랑이를 잡고 환궁함.

[세조실록 권33, 세조 10年 5月 28日(경진)]

○ 명(明)나라 사신(使臣)이 한강(漢江)에서 유람하는데, 관반(館伴) 박원형(朴元亨) 등이 참여하고, 제천정(濟川亭)에 올라가 잔치를 베풀.

[세조실록 권33, 세조 10年 5月 30日(임오)]

○ 경차관(敬差官) 강미수(姜眉壽)·김작(金礎)을 경기에 보내어 각 고을에 붙잡혀 있는 적인(賊人)들을 국문할 사목(事目)을 줌.

[세조실록 권33, 세조 10年 6月 2日(갑신)]

○ 경기·황해·평안도 관찰사에게 치서하여 명나라 사신의 제영(題詠)을 도착전에 벽위에 걸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33, 세조 10年 6月 3日(을유)]

○ 좌의정(左議政) 구치관(具致寬) 등을 보내어 <고양> 벽제역(碧蹄驛)에서 사신을 선위(宣慰)함.

[세조실록 권33, 세조 10年 6月 5日(정해)]

○ 예조(禮曹)에서 서산윤(瑞山尹) 이혜(李譏)의 아내 양천현부인(陽川縣夫人) 김씨의 부음에 쌀 25석을 부의로 줄 것을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33, 세조 10年 6月 6日(무자)]

○ 명나라 사신이 개성부(開城府)에 이르러 임금의起居(起居)를 묻자 사례토록 함.

[세조실록 권33, 세조 10年 6月 16日(무술)]

○ 호조(戶曹)에서 원각사(圓覺寺)의 대종 주조에 부족한 동(銅)을 개성부(開城府)와 경기 등 각도에서 시가에 따라 무역하여 올려 보내도록 할 것을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33, 세조 10年 6月 19日(신축)]

○ 효령대군(孝寧大君) 이보(李補)가 아뢰어 이달 13일에 서기(瑞氣)가 <양주> 회암사(檜巖寺)에서부터 경도사(京都寺)까지 잇달아 뻗었다고 함.

[세조실록 권33, 세조 10年 7月 26日(정축)]

○ 경기·충청·경상·전라도의 관찰사(觀察使)에게 교지를 내려 도내의 여러 고을에 10일을 기한으로 금(金)을 채취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34, 세조 10年 8月 1日(임오)]

○ 호조(戶曹)에 전지하여 서적전(西籍田)의 역을 맡은 장단현(長湍縣)·개성부(開城府)의 백성은 다른 일에 사역시키지 말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34, 세조 10年 8月 3日(갑신)]

○ 호조(戶曹)에 전지하여 군자감(軍資監)의 용산강감(龍山江監)의 각 창고를 송현창(松峴倉)의 예에 의하여 벽(壁) 바깥에 담장을 쌓고, 송현창에는 방화벽을 쌓을 것을 명함.

[세조실록 권34, 세조 10年 8月 28日(기유)]

○ 경기 경차관(敬差官) 유자운(柳子雲) 등에게 명하여 각 고을의 기계(機械)와 함정(陷穽)을 조사하여 아뢰게 함.

[세조실록 권34, 세조 10年 9月 2日(임자)]

○ 병조판서(兵曹判書)·도승지(都承旨)·수원부사(水原府使) 등에게 명하여 군사들에게 주는 조정(助丁)을 의논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34, 세조 10年 9月 2日(임자)]

○ 길창부원군(吉昌府院君) 권람(權孳)이 어머니를 모시고 개성부(開城府)에 간다고 하직하자, 경기관찰사에게 음식을 준비하여 공돈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34, 세조 10年 9月 7日(정사)]

○ 풍수학(風水學) 훈도(訓導) 최연원(崔演元) 등이 상언하여, 지리학(地理學) 훈도 최양선(崔楊善)의 의견을 반박하며, 백악산(白岳山)이 <양주> 삼각산(三角山)이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향하여 내려온 명당임을 아뢴.

[세조실록 권34, 세조 10年 9月 8日(무오)]

○ 수원부사(水原府使) 강노(姜老)를 경기·충청도 군적부사(軍籍副使)로 삼음.

[세조실록 권34, 세조 10年 10月 2日(임오)]

○ 임금이 중궁과 더불어 풍양(豐壤)의 강무(講武)에 거동함.

[세조실록 권34, 세조 10年 10月 4日(갑신)]

○ 밤 3고(鼓)에 좌상(左廂)·우상(右廂)이 <양주> 아차산(峨嵯山)에서 물이를 하고, 거가(車駕)가 사장(射場)에 이르니, 효령대군(孝寧大君) 이보(李補)와 유도백관(留都百官)들이 어가(御駕)를 맞이함.

[세조실록 권34, 세조 10年 10月 12日(임진)]

○ 병조(兵曹)에서 경기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여러 진(鎭)으로 하여금 각각 군사를 모아 점열(點閱)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34, 세조 10年 10月 15日(을미)]

○ 사헌부(司憲府)에서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을 돌아보지 않은 경기관찰사 등의 문책을 청함.

[세조실록 권34, 세조 10年 10月 22日(임인)]

○ 호조(戶曹)에서 경기도 등에서 새로 개간한 땅은 경차관(敬差官)을 보내어·재상(災傷)을 살펴서, 대전(大典)에 의해 수조할 것을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34, 세조 10年 10月 25日(을사)]

○ 호조(戶曹)에서 흉년이 든 경기의 과전(科田) 조세는 주창(州倉)에 바쳐 내년 종자로 쓰고, 경창(京倉)의 쌀을 대신 주도록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34, 세조 10年 11月 2日(신해)]

○ 강무(講武)때 호랑이에게 상한 자에게 경기관찰사가 양식을 주도록 하라고 전지함.

[세조실록 권34, 세조 10年 12月 4日(계미)]

○ 형조(刑曹)에서 실농한 강원도 영서지방의 여러 고을이 올리는 가을·겨울의 선상노(選上奴)는 놓아 보내고, 내년 봄과 여름의 선상노는 다른 도(道)로 옮겨 정하며, 잡송(雜訟)을 정지토록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34, 세조 10年 12月 5日(갑신)]

○ 호조(戶曹)에서 국둔전(國屯田)의 수확이 끝나지 않았는데 해임된 김포현령(金浦縣令) 김원효(金元孝)를 체임하지 말도록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34, 세조 10年 12月 12日(신묘)]

○ 파주(坡州)에 사는 조부모의 근친을 청한 동부승지(同副承旨) 윤필상(尹弼商)에게 옷을 하사하고, 경기관찰사에게 치서하여 조부모에게 잔치를 내려주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34, 세조 10年 12月 14日(갑오)]

○ 사간원(司諫院)에서 문신(文臣)이 아닌 신분으로 제수한 경기관찰사 심선(沈璿), 경력(經歷) 송숙기(宋淑琪)의 체차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34, 세조 10年 12月 17日(병신)]

○ 좌의정(左議政) 구치관(具致寬)이 광주(廣州)의 부모 분묘에 제사지내자 경기관찰사에게 치제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34, 세조 10年 12月 18日(정유)]

○ 사헌지평(司憲持平) 조민(趙岷)이 양근군사(楊根郡事) 남희(南禧)에 대한 전최(殿最)를 잘못된 경기관찰사 심선(沈璿)의 국문을 청하자 윤택함.

[세조실록 권34, 세조 10年 12月 26日(을사)]

○ 난신 박포(朴苞)의 손자인 죽산(竹山) 관노(官奴) 박동량(朴同良)과 그의 자녀를 모두 석방하여 보내도록 의금부(義禁府)에 전지함.

[세조실록 권35, 세조 11年 1月 8日(병진)]

○ 경기관찰사 심선(沈璿)이 광주(廣州)·양근(楊根)·여흥(驪興) 등지에 도적이 흥행함을 아뢰자 군사를 보내어 수색하여 잡게 함.

[세조실록 권35, 세조 11年 1月 21日(기사)]

○ 경외(京外)의 중[僧]들이 상언하여 원각사(圓覺寺)의 중창에 부역하게 하고 도첩(度牒)을 줄 것을 청하자, 예조(禮曹)에서 이미 <양주> 회암사(檜巖寺)를 중수한 이래 도첩을 허락하지 않았으니, 허락하지 말 것을 아뢰어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35, 세조 11年 2月 2日(기묘)]

○ 사헌감찰(司憲監察) 김양완(金良琬)을 양근(楊根)에 보내어 양근군사(楊根郡事) 남희(南禧)를 추국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35, 세조 11年 2月 4日(신사)]

○ 광주(廣州)·과천(果川) 등지에 진무부장(鎭撫部將) 등을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도둑을 잡게 함.

[세조실록 권35, 세조 11年 2月 8日(을유)]

○ 경기관찰사가 장단군사(長湍郡事)의 첩정에 의거하여 적성(積城)과 장단의 소금을 팔아 소

재 읍의 군자(軍資)에 보충하게 할 것을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35, 세조 11年 3月 1日(무신)]

○ 왕세자가 <광주> 영릉(英陵)·<광주> 헌릉(獻陵)에 나아가 한식제(寒食祭)를 대행함.

[세조실록 권35, 세조 11年 3月 4日(신해)]

○ 경기관찰사 심선(沈璿)이 백성들에게 횡령(橫斂)하여 백성의 원망이 많은 김포현령(金浦縣令) 김원효(金元孝)의 파출을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35, 세조 11年 3月 10日(정사)]

○ 장용대(壯勇隊) 김귀진(金貴珍) 등이 경기의 양주(楊州)·포천(抱川)·영평(永平) 등지에 도둑이 있다고 밀고하자 진무(鎭撫) 정산휘(鄭山彙)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잡게 함.

[세조실록 권35, 세조 11年 4月 1日(정축)]

○ 호조(戶曹)에서 경기의 공염(貢鹽)을 사재감(司宰監)·봉상소(奉常所)의 납부 외에는 모두 군자(軍資)에 납부하여 회계를 기록하도록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35, 세조 11年 4月 19日(을미)]

○ 최연(崔演)을 잡아 고한 광주인(廣州人) 최수산(崔守山)을 포상함.

[세조실록 권36, 세조 11年 5月 7日(계축)]

○ 이계전(李季專)을 개성부유수(開城府留守)로 삼음.

[세조실록 권36, 세조 11年 5月 20日(병인)]

○ 경기경차관(京畿敬差官) 정은(鄭垠)이 강망(姜亡)·용대평(龍大平)·김생(金生) 등의 죄를 아뢰자, 의금부(義禁府)에 명하여 죄를 조율하여 계문토록 함.

[세조실록 권36, 세조 11年 5月 21日(정묘)]

○ <지평> 송현창(松峴倉)에서 야직(夜直)하는 병사가 칼에 찔려 죽었으니, 수색할 것을 형조(刑曹)에서 청하자,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36, 세조 11年 5月 24日(경오)]

○ 전 승의전부사(崇義殿副使) 왕순례(王循禮)를 마전군(麻田郡)에서 부름.

[세조실록 권36, 세조 11年 5月 24日(경오)]



○ 경기도사(京畿都事) 박미(朴楣)가 음죽현감(陰竹縣監) 이시보(李時瑤)가 도둑을 만난 것을 아뢰자, 8도 관찰사(觀察使)에게 도내를 수색하여 잡도록 명함.

[세조실록 권36, 세조 11年 5月 25日(신미)]

○ 죽은 이천감무(利川監務) 윤서(尹瑞)의 아내 무덤을 억지로 이장토록 한 경기관찰사 심선(沈璿)과, 이에 순종한 적성현감(積城縣監) 김백형(金伯衡)의 파출을 사헌부(司憲府)에서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36, 세조 11年 5月 28日(갑술)]

○ 의금부(義禁府)에 전지하여 경내의 도적을 막지 못한 포천현감(抱川縣監) 단유인(段由仁)을 추국토록 명함.

[세조실록 권36, 세조 11年 5月 29日(을해)]

○ 병조(兵曹)에서 방어에 긴요한 강화(江華)·교동(喬桐)에 병조판서(兵曹判書) 한명회(韓明澮)를 보내 성터를 살피고, 농한기에 축성해 줄 것을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36, 세조 11年 6月 9日(을유)]

○ 호조(戶曹)에서 경기좌도 찰방(察訪) 조추(趙秋)의 계본에 의거하여 각도의 여러 역(驛)에 소금을 주게 할 것을 아뢰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36, 세조 11年 6月 11日(정해)]

○ 양성인(陽城人) 행상호군(行上護軍) 이순지(李純之)가 졸(卒)함.

[세조실록 권36, 세조 11年 6月 19日(을미)]

○ 삭녕군사(朔寧郡事)에게 치서하여 삭녕에 가둔 도적 지장생(李長生) 등을 의금부(義禁府) 낭청(郎廳)에 보내고, 나머지 도적들도 잡으면 보내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36, 세조 11年 7月 2日(정미)]

○ 경기관찰사에게 치서하여 군인을 모아 양근(楊根)의 대탄(大灘)에서 흥원창(興原倉)까지 채금토록 함.

[세조실록 권36, 세조 11年 7月 6日(신해)]

○ 경기관찰사 최한경(崔漢卿)에게 수전(水戰)할 배와 기구를 가지고 양화도(楊花渡)에 정박하도록 유시함.

[세조실록 권36, 세조 11年 7月 14日(기미)]

○ 각도에 경차관(敬差官)을 보내 체옥(滯獄)의 빠른 추국을 명하고, 경기에는 정은(鄭垠)을 경차관으로 보냄.

[세조실록 권36, 세조 11年 7月 15日(경신)]

○ 각도 경차관(敬差官)에게 사목(事目)을 강연하고, 술을 삼가며 일을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명함.

[세조실록 권36, 세조 11年 7月 24日(기사)]

○ 경기·충청도 관찰사(觀察使)에게 치서하여 거동할 때 지응하는 잡물은 이미 정한 것 이외에는 한 물건이라도 넘지 말게 함.

[세조실록 권36, 세조 11年 7月 28日(계유)]

○ 광주(廣州) 사람인 광성군(廣城君) 이극감(李克堪)이 졸(卒)함.

[세조실록 권36, 세조 11年 8月 2日(정축)]

○ 임금이 희우정(喜雨亭)에 거동하여 경기병선의 수전(水戰) 연습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36, 세조 11年 8月 7日(임오)]

○ 금년의 양잠(養蠶)에서 고치 생산이 감소하였으니 <양주> 아차산(峨嵯山) 잠실(蠶室)을 책임맡은 환관(宦官) 염득하(廉得河)·김중부(金仲富) 등을 국문하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36, 세조 11年 8月 10日(을유)]

○ 근정전(勤政殿)에서 개성군(開城君) 최유(崔濡) 등에게 양로연을 베풀.

[세조실록 권36, 세조 11年 8月 12日(정해)]

○ <고양> 봉현(蜂峴)에 거동하여 사냥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36, 세조 11年 8月 17日(임진)]

○ 임금이 중궁과 함께 온양(溫陽)에 거동하자 경기관찰사 최한경(崔漢卿)이 조복을 갖추고 맞이함.

[세조실록 권36, 세조 11年 8月 18日(계사)]

○ 대가가 진위(振威)에 머뭇.

[세조실록 권36, 세조 11年 8月 19日(갑오)]

○ 대가가 양성주정소(陽城晝停所)에 이르러 종친과 재추(宰樞)에게 주연을 베풀고 시를 지음.

[세조실록 권36, 세조 11年 8月 22日(정유)]

○ <안산> 광덕산(廣德山)에서 사냥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37, 세조 11年 9月 1日(을사)]

○ 온양군사(溫陽郡事) 이신희(李愼孝)가 관찰사(觀察使)와 상피되므로 장단군사(長湍郡事)에 제수함.

[세조실록 권37, 세조 11年 9月 6日(경술)]

○ 왕세자(王世子)에게 명하여 좌상(左廂)·우상(右廂)의 군사로 <안산> 광덕산(廣德山)에서 물이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37, 세조 11年 9月 8日(임자)]

○ 백성에게 불법으로 취렴(聚斂)한 양성현감(陽城縣監) 정석년(鄭錫年)을 국문하고 파면함.

[세조실록 권37, 세조 11年 9月 11日(을묘)]

○ 어가가 진위(振威)에 머뭇.

[세조실록 권37, 세조 11年 9月 12日(병진)]

○ 대가를 배종하는 가근장(假近仗)을 충실하게 못한 경기관찰사 최한경(崔漢卿)과 경력(經歷) 등을 국문하도록 함.

○ 저녁에 <광주> 낙생역(樂生驛)에 머뭇.

[세조실록 권37, 세조 11年 9月 19日(계해)]

○ 윤자(尹慈)를 경기관찰사로 삼음.

[세조실록 권37, 세조 11年 9月 21日(을축)]

○ 임금이 <광주> 영릉(英陵)의 별제(別祭)를 행하려 하였으나, 바람과 우뢰의 징조가 있어 정지함.

[세조실록 권37, 세조 11年 10月 15日(기축)]

○ 유서(宥書)를 종리(從吏)를 시켜 반포토록 한 음죽현감(陰竹縣監) 이시보(李時珣)와, 이를

이시보가 친히 반포한 것으로 거짓 고한 포천현감(抱川縣監) 단유인(段由仁) 등을 국문하고, 단유인의 고신(告身)을 거둬들임.

[세조실록 권37, 세조 11年 10月 15日(기축)]

○ 호조(戶曹)에서 개성부(開城府)의 공수전(公須田)을 본부의 군자전(軍資田)으로 절급해 줄 것을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37, 세조 11年 11月 3日(정미)]

○ 도체찰사(都體察使) 한명회(韓明澮)가 경기의 강화(江華)·교동(喬桐)의 성을 호패군적(號牌軍籍)과 사민전송(徙民傳送)이 끝난 후 쌓을 것을 아뢰자,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37, 세조 11年 11月 6日(경술)]

○ 각도 경차관(敬差官)에게 수령(守令)과 함께 술을 마시어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이름.

[세조실록 권37, 세조 11年 11月 10日(갑인)]

○ 도의 관찰사(觀察使)·절도사(節度使)·처치사(處置使)에게 진상하는 방물을 양식에 의해 정교하고 단단하게 제조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37, 세조 11年 11月 15日(기미)]

○ 이조(吏曹)에서 개성부(開城府)에 토관직(土官職)의 설치를 건의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37, 세조 11年 11月 18日(임술)]

○ 동교(東郊)에 범[虎]이 있다고 아뢰자 친히 동교(東郊)에 거둥함.

[세조실록 권37, 세조 11年 11月 28日(임신)]

○ 대사헌(大司憲) 양성지(梁誠之)가 <고양> 봉현(蜂峴)으로 호랑이 사냥 나가는 일을 중지하도록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37, 세조 11年 12月 1日(갑술)]

○ 서교(西郊)에 거둥하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37, 세조 11年 12月 3日(병자)]

○ 동교(東郊)에 범이 들어왔다고 아뢰자, 임금이 <양주> 아차산(峨嵯山) 아래에 거둥하여 좌상군(左廂軍)·우상군(右廂軍)으로 하여금 합하여 포위하게 하였으나 잡지 못함.

[세조실록 권37, 세조 11年 12月 19日(임진)]

○ 사헌부(司憲府)에서 경기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죽은 아버를 제때에 장사하지 않은 진의부위(進義副尉) 이맹옹(李孟擁)의 과죄를 청하였으나 용서하고 고신만 거둬.

[세조실록 권37, 세조 11年 12月 28日(신축)]

○ 형조가 백성을 무고하게 치사시킨 양지현감(陽智縣監) 남지(南芝)와, 이를 거짓으로 검시한 용인현령(龍仁縣令) 민순(閔諄), 진위현령(振威縣令) 김순선(金純善), 죽산현감(竹山縣監) 우공로(禹恭老)의 과죄를 청하자, 남지는 영구히 서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파출함.

[세조실록 권38, 세조 12年 1月 15日(무오)]

○ 개성부(開城府)를 외관(外官)으로 하고, 양주도호부(楊州都護府)를 목(牧)으로 올리며, 수원(水原)에 판관(判官)을 설치하는 등의 관제를 정비함.

[세조실록 권38, 세조 12年 1月 21日(갑자)]

○ 경기 양주(楊州)의 백성이 조 이삭이 두 갈래로 난 것을 바침.

[세조실록 권38, 세조 12年 2月 13日(을유)]

○ 이문형(李文炯)의 시신(屍身)이 올라올 때 경기·황해도에서 치제하라고 전지함.

[세조실록 권38, 세조 12年 2月 21日(계사)]

○ 병조(兵曹)에서 경기 강화(江華)의 모도(茅島), 남양(南陽)의 말근도(末斤島) 등 각도의 여러 섬에 국마(國馬)를 방목케 할 것을 건의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38, 세조 12年 2月 24日(병신)]

○ 병조(兵曹)에서 아뢰어 <인천> 용류도겸감목(龍流島兼監牧) 민효열(閔孝悅)이 관리한 말 1백 60필 가운데 58필이 죽었고, <남양> 승황도(昇荒島)는 말 86필 가운데 62필이 죽었으니 법에 의하여 징납(徵納)할 것을 청하자, 임금이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38, 세조 12年 3月 12日(계축)]

○ 의금부(義禁府)에 전교하여 부평(富平)에 안치한 김자청(金自靖)을 석방함.

[세조실록 권38, 세조 12年 3月 13日(갑인)]

○ <광주> 영릉(英陵)과 <광주> 헌릉(獻陵)에 친히 제사지냄.

[세조실록 권38, 세조 12年 3月 16日(정사)]

○ 강원도의 고성(高城) 탕정(湯井)에 거둥하고, 양주(楊州)의 회곡천(灰谷川)에 이르자 경기 관찰사 윤자(尹慈), 절도사(節度使) 김겸광(金謙光), 도사(都事) 허적(許迪) 등이 알현하여 맞이함.

[세조실록 권38, 세조 12年 3月 30日(신미)]

○ 경기·강원도의 70세 이상 노인에게 1자급을 가하라고 전교함.

[세조실록 권38, 세조 12年 윤 3月 21日(임진)]

○ 대가가 지평(砥平)에 도달함.

[세조실록 권38, 세조 12年 윤 3月 22日(계사)]

○ 대가가 양근군(楊根郡)의 시위동(時位洞)에 이름.

[세조실록 권38, 세조 12年 윤 3月 23日(갑오)]

○ <양주> 묘적산(妙寂山)에서 사냥을 구경하고, 저녁에 평구역(平丘驛) 들에서 머물.

[세조실록 권38, 세조 12年 윤 3月 24日(을미)]

○ 의빈(儀賓) 심안의(沈安義) 등을 백관장(百官將)으로 삼고, 중추부지사(中樞府知事) 김국광(金國光) 등을 잡류장(雜類將)으로 삼아 <양주> 아차산(峨嵯山)에서 물이를 함.

[세조실록 권38, 세조 12年 윤 3月 28日(기해)]

○ 뇌영(賴永)의 사자(使者) 편에 임금이 일본국왕(日本國王)에게 글을 부쳤는데, 근래에 금강산(金剛山)에 순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<지평> 미지산(彌智山)·용문사(龍門寺)를 거치면서 부처의 신통력을 징엄하였으니, 같이 태평을 누리고자 한다고 함.

[세조실록 권38, 세조 12年 4月 8日(무신)]

○ 호조(戶曹)에서 경기좌우도 수운판관(水運判官)에게 늪급전(廩給田)의 지급을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38, 세조 12年 4月 14日(갑인)]

○ 충순당(忠順堂)에 나아가 좌의정(左議政)·좌찬성(左贊成), 경기관찰사 윤자(尹慈) 등에게 주연을 베풀.

[세조실록 권38, 세조 12年 4月 15日(을묘)]

○ 경기관찰사에게 지평(砥平)·양근(楊根)·광주(廣州) 등지에 창궐하는 도적을 잡지 못한 고

을 수령(守令)을 국문하라고 하사함.

[세조실록 권39, 세조 12年 5月 22日(임진)]

○ 경기관찰사가 불효한 고양(高陽) 사람 송인례(宋因禮) 형제의 치죄를 청하자, 형조(刑曹)에 내려 의논하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39, 세조 12年 7月 5日(갑술)]

○ 간부(姦夫) 만중(萬中)과 공모하여 남편 전치경(全致敬)을 살해하고 도망친 파주(坡州)의 고미(古未)와 만중(萬中)의 체포를 명함.

[세조실록 권39, 세조 12年 7月 12日(신사)]

○ 병조(兵曹)에서 개성부와 경기 등 각도의 군기(軍器)를 상정하여 아뢰.

[세조실록 권39, 세조 12年 8月 11日(경술)]

○ 관내에 거주하는 사노(私奴) 금록(今錄)을 억울하게 죽이고, 백성들에게 재물을 거두어 금록의 아내와 주인에게 주어 금록이 자살한 것으로 꾸며 보고한 전 파주목사(坡州牧使) 윤훈(尹燾)을 유배하고 영구히 서용하지 말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39, 세조 12年 8月 17日(병진)]

○ 삭녕(朔寧)과 개성(開城)에서 온 미친 여자를 혜민서(惠民署)에 보내 구료하라고 전교함.

[세조실록 권39, 세조 12年 8月 21日(경신)]

○ 청계[靑蟹] 등을 한 번도 진상하지 않은 사옹원(司饗院) 관리와 경기관찰사의 도사(都事)와 해당 수령(守令) 등을 추핵하라고 사헌부(司憲府)에 전지함.

[세조실록 권39, 세조 12年 8月 25日(갑자)]

○ 각도 관찰사(觀察使)에게 옥사(獄事)를 기한내에 처결하도록 유시함.

[세조실록 권39, 세조 12年 8月 27日(병인)]

○ 왕세자(王世子)가 <양주> 묘적산(妙寂山)에서 사냥하여 노루와 꿩을 잡아서 임금에게 바치니, 승지(承旨) 등에게 하사함.

[세조실록 권39, 세조 12年 9月 1日(기사)]

○ 경기문폐사(京畿問弊使) 옥산군(玉山君) 이제(李躋)가 복명하여 강화부사(江華府使) 우계번(禹繼蕃), 과천현감(果川縣監) 임팽손(任彭孫)과 전 현감 윤계지(尹繼智) 등을 논죄함.

[세조실록 권39, 세조 12年 9月 5日(계유)]

○ 형조(刑曹)에서 백성들의 진상을 들보지 않고 생추(生芻)를 대납시킨 경기관찰사 윤자(尹慈)의 계문을 재가하지 말도록 청하자, 논죄하지 말라고 답함.

[세조실록 권39, 세조 12年 9月 26日(갑오)]

○ 경기에서 강무(講武)하려고 강순(康純)을 좌상대장(左廂大將), 정식(鄭軾)을 우상대장(右廂大將)으로 삼아 진(陣)을 치고 기다리게 함.

[세조실록 권40, 세조 12年 10月 6日(갑진)]

○ 도둑을 잡은 공으로 외람되게 상직을 받은 진위현령(振威縣令) 양원(梁瑗) 등의 자금을 회수하도록 명함.

[세조실록 권40, 세조 12年 10月 19日(정사)]

○ 김필(金穰)을 경기관찰사로 삼음.

[세조실록 권40, 세조 12年 10月 25日(계해)]

○ 경기 하진참(下津站)에 소속된 옥천군(沃川郡)의 강자선(薑字船) 1척을 사사로이 수납한 수참판관(水站判官) 등을 파직시킴.

[세조실록 권40, 세조 12年 11月 2日(경오)]

○ 경기관찰사에게 온천이 난 곳을 알리는 사람은 관직과 상을 주고, 천민은 신분을 면하게 해 준다는 사실을 널리 효유토록 하라고 치서함.

[세조실록 권40, 세조 12年 11月 3日(신미)]

○ 경기의 여러 고을 수령(守令)들에게 송골(松鶻)을 잡는 기계를 마음을 다하여 배치하라고 치서함.

[세조실록 권40, 세조 12年 11月 4日(임신)]

○ 경기·충청도 관찰사(觀察使)에게 빨리 감옥을 비게 하라고 치서함.

[세조실록 권40, 세조 12年 11月 9日(정축)]

○ 보제별감(報祭別監)인 시강원문학(侍講院文學) 김효창(金孝昌)을 경기에 파견하여 문폐사(問弊使)가 논핵한 수령(守令)을 추국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40, 세조 12年 11月 10日(무인)]



○ 형조(刑曹)에 범법한 강화부사(江華府使) 우계번(禹繼蕃) 등의 고신을 거두고, 과천현감(果川縣監) 윤계지(尹繼智), 전 과천현감 임팽손(任彭孫) 등을 파직하라고 전지함.

[세조실록 권40, 세조 12年 11月 15日(계미)]

○ 개성군 최유(崔濡) 등에게 궤장(几杖)을 하사함.

[세조실록 권40, 세조 12年 11月 29日(정유)]

○ 경기관찰사 등에게 순행시 도로·교량·행궁을 수리하는 등의 일을 함부로 하지 말 것을 명함.

[세조실록 권40, 세조 12年 11月 29日(정유)]

○ 호조(戶曹)에서 경기절도사(京畿節度使)의 계본에 의거하여 여러 고을의 국둔전(國屯田) 경작 개선안을 아뢰자 상정소(詳定所)에 의논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40, 세조 12年 12月 22日(기미)]

○ 황수신(黃守身)이 소분(掃墳)하러 교하(交河)에 가자, 노사신(盧思愼) 등에게 선운을 가지고 연서역(延曙驛)에서 전송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41, 세조 13年 1月 2日(기사)]

○ 호조(戶曹)에서 경기체찰사(京畿體察使) 성봉조(成奉祖)의 계본에 의거하여 관내에 유망한 백성이 많고 전지가 황폐한 곳의 수령(守令)을 추핵하여 죄주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41, 세조 13年 1月 6日(계유)]

○ 승정원(承政院)에 전지하여 해빙기에 얼음을 걸어 건너지 못하도록 금할 것을 경기관찰사에게 유시함.

[세조실록 권41, 세조 13年 1月 9日(병자)]

○ 왕순례(王循禮)를 <마전> 행숭의전사(行崇義殿使)로 삼음.

[세조실록 권41, 세조 13年 1月 12日(기묘)]

○ 경기 부평부(富平府)에 온천이 있다고 고하자 신숙주(申叔舟)와 황수신(黃守身)에게 살펴 보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41, 세조 13年 1月 12日(기묘)]

○ 사복시(司僕寺) 제조(提調)가 <양주> 아차산(峨嵯山)의 망울리(芒兀里) 목장터에 경기 제

포(諸浦)의 당령선군과 당번 보병(步兵)·정병(正兵)에게 담장을 쌓게 하고, 광주목사(廣州牧使)에게 감목을 겸임토록 해줄 것을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41, 세조 13年 1月 18日(을유)]

○ 경기관찰사 등에게 도내 수령(守令)·향리(鄕吏)들이 대궐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관내 거주민들을 책벌하지 못하도록 그 실상을 핵실하여 아뢰게 함.

[세조실록 권41, 세조 13年 1月 20日(정해)]

○ 맹인(盲人) 이옥산(李玉山)이 부평(富平)에 온정이 있다고 고한 것을 망령된 말이라고 남형(濫刑)한 의금부지사(義禁府知事) 정회아(鄭懷雅)를 해임함.

[세조실록 권41, 세조 13年 1月 23日(경인)]

○ 임금이 태종(太宗)과 세종(世宗)을 위하여 <광주> 헌릉(獻陵)과 <광주> 영릉(英陵)의 두 능 곁에 <여주> 보은사(報恩寺)를 짓고자 영사제조(營寺提調) 등에게 명하여 터를 살펴보게 함.

[세조실록 권41, 세조 13年 1月 24日(신묘)]

○ 능성군(綾城君) 구치관(具致寬) <여주> 보은사(報恩寺)의 터를 살펴보고 <광주> 영릉(英陵)에서 돌아오다가 살곳이[箭串]에 이름.

[세조실록 권41, 세조 13年 1月 25日(임진)]

○ 고령군(高靈君) 신숙주(申叔舟)와 영의정(領議政) 한명회(韓明澮) 등에게 명하여 <여주> 보은사(報恩寺)의 터를 다시 살펴보게 함.

[세조실록 권41, 세조 13年 1月 27日(갑오)]

○ 고령군(高靈君) 신숙주(申叔舟)와 영의정(領議政) 한명회(韓明澮) 등에게 명하여 <여주> 보은사(報恩寺)의 터를 다시 살펴보게 함.

[세조실록 권41, 세조 13年 1月 28日(을미)]

○ 신숙주(申叔舟) 등이 <광주> 영릉(英陵)에서 돌아와 <여주> 보은사(報恩寺)의 지도를 만들어 바침.

[세조실록 권41, 세조 13年 2月 3日(기해)]

○ 형조판서(刑曹判書) 서거정(徐居正)에게 상지관(相地官) 안효례(安孝禮)·이승욱(李承旭) 등을 데리고 경기에 가서 영웅대군(永膺大君) 이염(李琰)의 장지를 살펴보게 함.

[세조실록 권41, 세조 13年 2月 12日(무신)]

○ 옥사를 정지시키고 판결하지 않은 양주부사(楊州府使) 홍의달(洪義達)과 연천현감(漣川縣監) 신수담(辛壽聃)을 파직함.

[세조실록 권41, 세조 13年 2月 14日(경술)]

○ 포천(抱川)·영평(永平) 등지에서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한 도적을 김용달(金用達)과 남이(南怡)를 보내어 잡게 함.

[세조실록 권41, 세조 13年 2月 17日(계축)]

○ 경기관찰사에게 광주(廣州)에서 살다 입조한 환자(宦者) 정선(鄭善)의 조카 정운백(鄭芸伯)에게 완혼하도록 치서함.

[세조실록 권41, 세조 13年 2月 26日(임술)]

○ 병조(兵曹)에서 팔도군적사(八道軍籍使) 김질(金磧)의 계본에 의거하여 왕래가 쉬운 충청도와 경기도의 사람으로 조례(皂隸)를 차정해 줄 것을 아뢰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41, 세조 13年 2月 26日(임술)]

○ 호조(戶曹)에서 흉년이 든 경기 등에 군자창(軍資倉) 곡식으로 우선 진휼하게 하고 가을에 상환하게 해줄 것을 청하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41, 세조 13年 3月 18日(계미)]

○ 성균직강(城均直講) 김유(金紉)와 사예(司藝) 유희익(兪希益) 등에게 명하여 <광주> 영릉(英陵)에 가서 인지의(印地儀)를 가지고 땅을 측량해 보아 시험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41, 세조 13年 3月 27日(임진)]

○ 진상물을 올리지 않은 경기관찰사 김필(金攴)과 도사(都事) 윤기반(尹起蕃)을 파직하고, 이계전(李季專)을 경기관찰사로 삼음.

[세조실록 권41, 세조 13年 3月 30日(을미)]

○ <양주> 아차산(峨嵯山)에 도적들이 숨어 있다는 소문에 호군(護軍) 최적(崔適)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잡게 하였으나, 잡지 못하고 돌아옴.

[세조실록 권42, 세조 13年 4月 1日(병신)]

○ 임금이 교태전(交泰殿)에서 성균사성(成均司成) 임수겸(林守謙)에게 유생(儒生)과 의학(醫學)·역학(譯學)을 업(業)으로 하는 사람을 모아서 강(講)하게 하니, 관상감정(觀象監正)

안효례(安孝禮), 군사감첨정(軍資監僉正) 최호원(崔灝元) 등이 <광주> 영릉(英陵)의 산형도(山形圖)를 올리며 억지로 떠들어댔.

[세조실록 권42, 세조 13年 4月 5日(경자)]

○ 여러 대신들에게 <광주> 영릉(英陵)의 개장(改葬)을 의논하고, 신숙주(申叔舟) 등에게 경기의 땅을 가려 정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42, 세조 13年 5月 3日(정묘)]

○ 소헌왕후(昭憲王后)의 어머니 대부인(大夫人) 안씨(安氏)의 묘를 안성(安城)으로 옮기게 함.

[세조실록 권42, 세조 13年 5月 14日(무인)]

○ 상사(喪事)를 당해 경기 장단군(長湍郡)에 있는 절도사(節度使) 허종(許琮)을 부르게 함.

[세조실록 권42, 세조 13年 5月 19日(계미)]

○ 형조(刑曹)에 명하여 개성부(開城府)에서 총통(銃筒)을 사사로이 주조한 군기시(軍器寺) 녹사(錄事) 노조경(盧趙卿)을 잡아 국문토록 함.

[세조실록 권42, 세조 13年 6月 6日(기해)]

○ 경기·강원·함길도의 관찰사(觀察使)에게 치서하여 피살된 수령(守令)의 가족이 경유하는 고을에서는 초료(草料)하여 죽반(粥飯)을 주고 말을 주어 호송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42, 세조 13年 6月 14日(정미)]

○ 경기관찰사 등에게 함길도(咸吉道)에 종군한 군사의 가동(家僮)·여정(餘丁) 가운데 옷과 양식을 가지고 가려는 자는 들어주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42, 세조 13年 6月 19日(임자)]

○ 도총사(都摠使) 종사관(從事官) 김관(金瓘)이, 맹득미(孟得美)·박자곤(朴自昆) 등이 <양주> 차유령(車踰嶺)을 지키다가 이시애(李施愛)에게 죽는 등 형편이 어렵게 되었으니, 정병(精兵) 등을 더 줄 것을 아뢰.

[세조실록 권42, 세조 13年 6月 26日(기미)]

○ 형조(刑曹)에서 부역을 균등하게 부과하지 못한 이천(利川)의 향리(鄕吏) 이근(李根)과 서원(書員) 정이흥(鄭而興)·원우(元右) 등과 이를 검찰하지 못한 이천부사(利川府使) 권미(權眉)·이세보(李世瑤)의 처벌을 청하자 형량을 정해 내림.

[세조실록 권42, 세조 13年 6月 29日(임술)]

○ 호조(戶曹)에서 군자감(軍資監)의 쌀 1천 2백 석을 경기의 포천(抱川)·영평(永平) 등지에 각 2백 석을 수송할 것과 그 방법을 아뢰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43, 세조 13年 7月 1日(갑자)]

○ 각도의 절제사(節制使)에게 이시애(李施愛)의 난을 정벌하기 위하여 도내에서 활을 잘 쏘는 백정을 각도에서 군량을 지참시켜 행재소(行在所)에 이르도록 할 것을 유시함.

[세조실록 권43, 세조 13年 7月 5日(무진)]

○ 개성사람 강호생(姜好生)이 이시애(李施愛) 정벌에 나가기를 원하자 시험을 보게 하여 견마배(牽馬陪)에 보충함.

[세조실록 권43, 세조 13年 7月 7日(경오)]

○ 경기절도사(京畿節度使) 권반(權攀)에게 여러 고을에 간직한 장전(長箭)·통전(筒箭)을 서울로 보내도록 유시함.

[세조실록 권43, 세조 13年 7月 9日(임신)]

○ 청성위(靑城尉) 심안의(沈安義), 도총관(都總管) 윤사흔(尹士昕)에게 좌상(左廂)·우상(右廂)으로 나누어 군사를 <양주> 녹양(綠楊)에 주둔시키고, 경기의 군사 2천여 인이 소격동(昭格洞)·장의동(壯義洞) 두 동에 진을 만들자, 세자에게 사열하라고 명함.

[세조실록 권43, 세조 13年 7月 27日(경인)]

○ 경기관찰사에게 함길도(咸吉道)의 정벌에 나아갔다가 화살에 맞고 생환한 금천(衿川)의 송계손(宋繼孫), 파주(坡州)의 승계손(承繼孫) 등에게 복호(復戶)와 존홀하라고 명함.

[세조실록 권43, 세조 13年 8月 2日(을미)]

○ 중 종혜(宗惠)가 의모(義母)와 간통하다가 발각되어 수원부(水原府)에서 옥사가 이루어짐.

[세조실록 권43, 세조 13年 8月 26日(기미)]

○ 경기관찰사 이계전(李季專)에게 양주(楊州)에서 병사한 당성군(唐城君) 홍순로(洪純老)의 어미를 구출하지 못한 양주수령의 죄를 핵문하여 아뢰라고 유시함.

[세조실록 권43, 세조 13年 8月 26日(기미)]

○ 각도에서 정벌에 종사하다가 돌아오는 군사들에게 양식 2천 9백 57석을 줌.

[세조실록 권43, 세조 13年 8月 28日(신유)]

○ 경기·황해도의 관찰사(觀察使)에게 도내 사로(斜路)의 역마(驛馬)도 평안도의 직로(直路)에다 입마(立馬)하여 대기하도록 유시함.

[세조실록 권43, 세조 13年 9月 5日(정묘)]

○ 경기관찰사 이계전(李季專)에게 함길도(咸吉道)의 정벌에 종군한 군사들이 굶주린 자와 병이 있는 자는 지나는 여러 고을에서 구료하도록 유시함.

[세조실록 권43, 세조 13年 9月 8日(경오)]

○ 호조(戶曹)에서 마전군(麻田郡)의 군자창(軍資倉) 곡식이 넉넉하지 못하니 승의전사(崇義殿使) 왕순례(王循禮)의 녹봉을 경창(京倉)에서 내려주도록 아뢰자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43, 세조 13年 9月 9日(신미)]

○ 기로연(耆老宴)을 <여주> 보제원(普濟院)에서 베풀.

[세조실록 권43, 세조 13年 9月 10日(임신)]

○ 평안도관찰사 오백창(吳伯昌)이 요동백호(遼東百戶) 백옹(白顛)이 온 것을 치계하니, 황치신(黃致身)을 개성부(開城府)의 선위사로 삼아 출발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43, 세조 13年 9月 11日(계유)]

○ 우승지(右承旨) 이극증(李克增)을 개성부(開城府)의 선위사(宣慰使)로 삼음.

[세조실록 권43, 세조 13年 9月 17日(기묘)]

○ 세자(世子)에게 명하여 <양주> 아차산(峨嵯山)에서 매사냥을 구경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43, 세조 13年 9月 20日(임오)]

○ 도총사(都摠使) 이준(李浚), 부사(副使) 조석문(曹錫文) 등이 돌아오니, 정벌(征伐)에 종군(從軍)하였던 제장(諸將)들과 더불어 동교(東郊)에서 맞이함.

[세조실록 권43, 세조 13年 9月 22日(갑신)]

○ 개성부(開城府) 선위사(宣慰使) 황치신(黃致身)이 하직함.

[세조실록 권43, 세조 13年 9月 24日(병술)]

○ 세자(世子)가 백관(百官)을 거느리고 임금의 탄신(誕辰)을 하례하니, 보경당(寶慶堂)에 나아가서 효령대군(孝寧大君) 등 여러 종친(宗親)·재추(宰樞)와 <마전> 승의전사(崇義殿使) 왕

순례(王順禮) 등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.

[세조실록 권43, 세조 13年 9月 24日(병술)]

○ 경기의 양근(楊根)·지평(砥平)의 수령(守令)에게 궁간목(宮幹木)을 벌채하는 궁인(宮人)을 공궤하고, 벌채한 나무는 입번하는 아전들로 운수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43, 세조 13年 9月 26日(무자)]

○ 개성부(開城府)의 별선위사(別宣慰使) 이극중(李克增)이 하직함.

[세조실록 권43, 세조 13年 9月 27日(기축)]

○ 개성부(開城府)의 별선위사(別宣慰使) 이극중(李克增)에게 면포겹단령(綿布袂團領)·면주유탑호(綿紬襦塔胡) 등을 주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44, 세조 13年 10月 1日(계사)]

○ 궁인(弓人) 남궁의(南宮義) 등에게 명하여 경기의 양근(楊根)·가평(加平)·지평(砥平) 등의 고을에 궁간(弓幹)의 재료를 채취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44, 세조 13年 10月 1日(계사)]

○ 호조(戶曹)에서 <지평> 송현(松峴)의 군자감(軍資監)과 사심시(司瞻寺)의 두 관청을 바꿀 것과 노비(奴婢)의 숫자를 맞추는 문제 등을 계청하니,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44, 세조 13年 10月 7日(기해)]

○ 경기의 과천현(果川縣)·금천현(衿川縣)에 도둑이 많아 겸사복(兼司僕) 한봉련(韓奉連), 도총부(都摠府) 낭청(郎廳) 김맹(金孟)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잡게 함.

[세조실록 권44, 세조 13年 10月 10日(임인)]

○ 개성부(開城府) 선위사(宣慰使) 홍응(洪應), 별선위사(別宣慰使) 권감(權瑊)이 하직함.

[세조실록 권44, 세조 13年 10月 11日(계묘)]

○ 승정원(承政院)에 전지(傳旨)하여 사신 임흥(任興)·이양(李良)에게 흑마포(黑麻布)를 각각 20필씩 더 주게 하고, 또 사람을 보내어 석등잔(石燈盞) 1벌을 <양주> 홍제원(洪濟院)에 가서 임흥에게 주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44, 세조 13年 10月 12日(갑진)]

○ 경기관찰사 이계전(李季專)이 승정원(承政院)에 글을 올려 임흥(任興)이 응구(鷹鞴)를 청

한다고 아뢰자, 응구를 내려줌.

[세조실록 권44, 세조 13年 10月 14日(병오)]

○ 귀성군(龜城君) 이준(李浚) 등이 이시에(李施愛) 난에 <양주> 차유령(車踰嶺)을 지키다 죽은 맹득미(孟得美)·박자곤(朴自昆)에게 각각 3자급(資級) 추증 등 논상할 내용을 아뢰자, 그대로 따름.

[세조실록 권44, 세조 13年 10月 16日(무신)]

○ 세자(世子)가 동교(東郊)에서 사냥하여 바친 여우를 놓아주도록 명함.

[세조실록 권44, 세조 13年 10月 20日(임자)]

○ 궁인(宮人) 한계지(韓繼之) 등을 경기의 양근(楊根)·가평(加平) 등의 고을에 보내 궁간목(宮幹木)을 채취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44, 세조 13年 11月 22日(갑신)]

○ 임금이 중궁(中宮)과 함께 <양주> 아차산(峨嵯山)에 거둥하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함.

[세조실록 권44, 세조 13年 11月 25日(정해)]

○ 내금위(內禁衛)를 경기의 양주(楊州)·양근(楊根)·광주(廣州)·과천(果川)·고양(高陽) 등지에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도적을 수색하여 잡게 함.

[세조실록 권44, 세조 13年 11月 26日(무자)]

○ 교하(交河) 사람 철동(哲同)이 자신을 의금부(義禁府) 조례(皂隸)로 정한 것에 대하여 원통함을 하소연하자 교하현감 최이남(崔李男)을 국문하라고 형조(刑曹)에 명함.

[세조실록 권44, 세조 13年 11月 28日(경인)]

○ 경기관찰사 등에게 초계군(草溪君) 정준(鄭俊)의 영구(靈柩)를 관원을 보내어 호송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44, 세조 13年 12月 7日(기해)]

○ 환관(宦官) 장부(張富)를 경기의 안성(安城)에 보내어 삼한국대부인(三韓國大夫人) 안씨(安氏)의 묘에 치전케 함.

[세조실록 권44, 세조 13年 12月 9日(신축)]

○ 임금이 서교(西郊)에 거둥하려다가 일기(日氣)로 인해 새벽녘에 동가(動駕)하여 <양주> 영서역(迎曙驛)에 이름.



[세조실록 권44, 세조 13年 12月 11日(계묘)]

○ 형조(刑曹)에 삼한국대부인(三韓國大夫人) 안씨(安氏)를 천장할 때, 역사(役事)를 피한 부평부사(富平府使) 김경장(金慶長)을 국문하라고 전지함.

[세조실록 권44, 세조 13年 12月 17日(기유)]

○ 사은사(謝恩使)가 통사(通事)를 보내 사신 남윤(南倫)이 병으로 회동관(會同館)에서 졸(卒)했음을 알리자, 경기관찰사 등에게 시신(屍身)을 호송하라고 치계함.

[세조실록 권45, 세조 14年 1月 11日(임신)]

○ 중추부영사(中樞府領事) 심희(沈澮)가 죽산현감(竹山縣監) 이승수(李崇壽), 용인현감(龍仁縣監) 이관식(李寬植) 등이 군기를 수효에 따라 만들지 않았고 또한 견고하고 치밀하지 못하다고 아뢰자, 이미 사유가 지났으므로 논하지 않는다고 치서함.

[세조실록 권45, 세조 14年 1月 16日(정축)]

○ 금년 봄에 <포천> 왕방산(王方山)·<영평> 보장산(寶藏山) 등지에서 사냥을 할 계획을 말하면서 짐승 쏘는 도리를 세자에게 써서 줌.

[세조실록 권45, 세조 14年 1月 27日(무자)]

○ 중궁(中宮)과 더불어 온양(溫陽)에 거둥하고, 거가가 살곳이[箭串]에 이르니 경기관찰사와 절도사(節度使)가 조복을 갖추고 맞이함.

[세조실록 권45, 세조 14年 1月 28日(기축)]

○ 이득수(李得守)를 부르려 광주목사(廣州牧使) 홍석(洪錫)을 보냄.

[세조실록 권45, 세조 14年 1月 28日(기축)]

○ 거가(車駕)가 용인(龍仁)의 가질동(加叱洞)에 이르러 사냥하고, 저녁에 진위(振威)의 장호원(長好院) 들에 머물름.

[세조실록 권45, 세조 14年 1月 29日(경인)]

○ 거가(車駕)가 양성(陽城)의 가천역(加川驛)에 이르러 사냥함.

[세조실록 권45, 세조 14年 2月 9日(경자)]

○ 세자에게 <안산> 광덕산(廣德山)에서 사냥을 구경할 것을 명함.

[세조실록 권45, 세조 14年 2月 15日(병오)]

○ 중 설잠(雪岑)이 수원(水原)의 북쪽 벌판에 온정이 있다고 하여 파산군(巴山君) 조득림(趙得琳)에게 가서 보게 함.

[세조실록 권45, 세조 14年 2月 16日(정미)]

○ 부평(富平)·통진(通津)·김포(金浦)·강화(江華) 등 고을의 수령(守令)에게 강화 등지에서 범[虎]을 잡을 때 구군(驅軍)을 가려서 붙이도록 유시함.

[세조실록 권45, 세조 14年 2月 23日(갑인)]

○ 경기관찰사에게 계품하지 않고 함부로 다리를 만든 것을 나무람.

[세조실록 권45, 세조 14年 2月 24日(을묘)]

○ 봉원군(蓬原君) 정창손(鄭昌孫), 우승지(右承旨) 어세겸(魚世謙)을 선위사(宣慰使)로 개성부(開城府)에 보냄.

[세조실록 권45, 세조 14年 2月 24日(을묘)]

○ 경기관찰사 등에게 명나라 사신을 지대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도록 명함.

[세조실록 권45, 세조 14年 2月 24日(을묘)]

○ 경기관찰사 등에게 태감(太監) 정선(鄭善)의 영구(靈柩)를 여러 고을의 정청(正廳)에 안주하게 하고, 각 고을에서 치제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45, 세조 14年 2月 26日(정사)]

○ 제용감(濟用監) 부정(副正) 구치평(具致平)을 장단(長湍)에 보내 태감 김보(金輔)의 족친을 찾아보게 함.

[세조실록 권45, 세조 14年 3月 1日(신유)]

○ 명나라 사신이 올 때 내조한 왜인의 거취에 대하여 의논하고, 이미 포구에서 떨어진 왜인들은 경기의 광주(廣州) 등 경유하는 고을에서 접대하라고 치서함.

[세조실록 권45, 세조 14年 3月 3日(계해)]

○ 경기관찰사 이계전(李季專)에게 수원(水原)·진위(振威)·용인(龍仁)·남양(南陽)·안산(安山) 등지의 죄인을 환궁을 기다린 뒤에 사람을 임명해서 서울로 압송하라고 치서함.

[세조실록 권45, 세조 14年 3月 4日(갑자)]

○ 경기관찰사 이계전(李季專)에게 하동군(河東君) 정인지(鄭麟趾)가 수원부(水原府)에 가면

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라고 치서함.

[세조실록 권45, 세조 14年 3月 7日(정묘)]

○ 경기관찰사 이계전(李季專)이 거위[鵝]를 진상하니 금후로는 진상하지 말도록 함.

[세조실록 권45, 세조 14年 3月 9日(기사)]

○ 거가(車駕)가 양성(陽城)의 소초평(所草平)에 머물.

[세조실록 권45, 세조 14年 3月 10日(경오)]

○ 거가(車駕)가 수원(水原)의 두원평(斗院平)에 머물.

[세조실록 권45, 세조 14年 3月 16日(병자)]

○ 환관(宦官) 이중근(李重斤)을 경기에 보내어 광주(廣州)·수원(水原)·양근(楊根)·지평(砥平)·천녕(川寧)·이천(利川)·음죽(陰竹)·금천(衿川)·과천(果川)·양천(陽川)·양주(楊州)·양지(陽智)·죽산(竹山)·가평(加平) 등 각 고을 아전·이졸(吏卒)을 2번으로 나누어 매 1번마다 각 2백 인이 채금(採金)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45, 세조 14年 3月 17日(정축)]

○ 당력(唐曆) 3벌을 경기에 보내어 명나라 사신이 지나는 여러 고을에 나누어 붙이게 함.

[세조실록 권45, 세조 14年 3月 17日(정축)]

○ 경기관찰사 이계전(李季專)에게 밀성군(密城君) 이침(李琛)이 올라올 때 수원부(水原府)에서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45, 세조 14年 3月 18日(무인)]

○ 경기관찰사 이계전(李季專)에게 이중근(李重斤)이 영역(領役)하는 채금군 4백명 내에서 2백 명을 환관 이청(李清)에게 주어 금을 캐게 함.

[세조실록 권45, 세조 14年 3月 20日(경진)]

○ 명나라 사신인 김보(金輔)의 가족에게 개성부(開城府)에 가서 김보를 맞이하게 하고, 경기관찰사 이계전(李季專)으로 하여금 호과(壺果)를 갖추어 주게 함.

[세조실록 권45, 세조 14年 3月 20日(경진)]

○ 고(故) 태감(太監) 정선(鄭善)의 영구(靈柩)에 도적이 발생할까 염려하여, 경기관찰사에게 사람을 소집하여 수호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45, 세조 14年 3月 22日(임오)]

○ 명나라 사신인 김보(金輔)의 어머니가 장단군(長湍郡)에 살면서 병이 들었으므로 의원을 보내 구료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45, 세조 14年 3月 25日(을유)]

○ 박시형(朴時衡)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백필(李伯弼)의 아우 이근필(李勤弼)이 위증(僞證)한 것은 이병규(李丙奎)라는 자가 <과천> 양재역(良才驛) 노차(路次)에 이르러 거짓말을 한 까닭으로 전후(前後)의 말 끝이 어그러짐과 같다는 등의 억울함을 진달하자, 임금이 즉시 가쇄(枷鎖)를 풀어 주고 후일에 직임을 주게 함.

[세조실록 권45, 세조 14年 3月 26日(병술)]

○ 경기관찰사 이계전(李季專)에게 명나라 사신인 강옥(姜玉)의 족친 김득(金得) 등이 개성부(開城府)에서 강옥을 알현할 때 주효(酒肴)와 떡을 갖추어 주게 함.

[세조실록 권45, 세조 14年 3月 27日(정해)]

○ 지난해 겨울 임금이 서교(西郊)에 거둥하여 남이(南怡)에게 등제(登第) 여부를 묻자 하지 않을 것으로 대답함.

[세조실록 권45, 세조 14年 3月 27日(정해)]

○ 명나라 사신의 족친이 알현할 때 예도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집의(執義) 이극돈(李克墩)에게 사목(事目)을 지녀 개성부(開城府)에 거느리고 돌아가게 함.

[세조실록 권46, 세조 14年 4月 3日(임진)]

○ 권맹희(權孟禧)를 경기관찰사로 삼음.

[세조실록 권46, 세조 14年 4月 5日(갑오)]

○ 행부호군(行副護軍) 조신손(趙信孫)을 별시위(別侍衛)·갑사(甲士)·장용대(壯勇隊)·파적위(破敵衛) 등을 거느리게 하여 적인(賊人)을 수원(水原)의 북재(北材)·치악(鷗岳) 등지에서 수색하여 잡게 함.

[세조실록 권46, 세조 14年 4月 6日(을미)]

○ 강옥(姜玉) 등이 개성부(開城府)에 이르자, 선위사(宣慰使) 정창손(鄭昌孫)·어세겸(魚世謙)이 선위례(宣慰禮)를 행함.

[세조실록 권46, 세조 14年 4月 7日(병신)]

○ 경기관찰사 권맹희(權孟禧)에게 김보(金輔)의 어머니가 말을 탈 수 있으면 말을 주고, 탈 수 없으면 교자(轎子)를 보내도록 치서함.

[세조실록 권46, 세조 14年 4月 7日(병신)]

○ 내수사(內需司)에 전지하여 수빈(粹嬪)과 윤소훈(尹昭訓)에게 고양(高陽) 등지의 농장에서 농사지을 땅과 벼, 황두 등을 내림.

[세조실록 권46, 세조 14年 4月 8日(정유)]

○ 태감(太監) 정선(鄭善)을 광주(廣州)에 장사지냄.

[세조실록 권46, 세조 14年 4月 21日(경술)]

○ 명나라 사신이 금강산(金剛山)에 번을 달고 하산하는 날에 승지를 보내 문안하게 하고, 양주(楊州)에서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45, 세조 14年 4月 29日(무오)]

○ 정항(鄭恒)이 태감(太監)의 백일재(百日齋)와 칠칠일재(七七日齋)를 베풀면서, 이칠일재(二七日齋)는 <양주> 아차산(峨嵋山)의 도량사(道場寺)에 판비(辦備)할 것을 말함.

[세조실록 권46, 세조 14年 4月 29日(무오)]

○ 부장(部長) 노우(盧祐)·김조양(金調陽) 등을 경기의 여러 고을에 보내어 밀고한 적인(賊人)을 잡게 함.

[세조실록 권46, 세조 14年 4月 30日(기미)]

○ 정항(鄭恒)이 정선(鄭善)의 재(齋)를 <과천> 청계산(淸溪山)의 수월암(水月菴)에서 베풀고자 하니, 선전관(宣傳官) 이의형(李義亨) 등을 보내어 경유하는 암자와 절의 숨길 만한 문서(文書)를 철거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46, 세조 14年 5月 7日(병인)]

○ 임금이 11일에 <양주> 홍복산(洪福山) 등지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, 명나라 사신을 맞아 위로하려고 경기의 양주(楊州)·광주(廣州)·포천(抱川) 등의 여러 고을에 재인(才人)과 백정(白丁) 등을 불러모으게 함.

[세조실록 권46, 세조 14年 5月 8日(정묘)]

○ 최유지(崔有池)를 경기도에 보내어 숨길 만한 문서(文書)를 철거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46, 세조 14年 5月 10日(기사)]

○ 도승지(都承旨) 권감(權瑊)을 양주(楊州)에 보내어 강옥(姜玉) 등을 문안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46, 세조 14年 5月 24日(계미)]

○ 김보(金輔)가 장단(長湍)에 가고자 하여 궁대(弓袋)와 전실(箭室)을 청하자, 표미구궁대(豹尾具弓袋)·전실(箭室)·달구(鞞狗) 등을 가져다주게 함.

[세조실록 권46, 세조 14年 5月 25日(갑신)]

○ 김보(金輔)가 두목 15인을 거느리고 장단(長湍)에 가니, 분예빈시(分禮賓寺)가 <양주> 홍제원(洪濟院)에서 전송함.

[세조실록 권46, 세조 14年 5月 25日(갑신)]

○ 도승지(都承旨) 권감(權瑊)을 장단(長湍)에 보내 김보(金輔)를 문안하게 함.

[세조실록 권46, 세조 14年 5月 25日(갑신)]

○ 허종(許琮)을 양천군(陽川君)으로, 이훈(李塤)을 경기관찰사로 삼음.

[세조실록 권46, 세조 14年 5月 26日(을유)]

○ 경기관찰사 이훈(李塤)이 배사함.

[세조실록 권46, 세조 14年 5月 27日(병술)]

○ 환관(宦官) 백충신(白忠信)이 금중(禁中)에서 벼락을 맞자, 각도에 경차관(敬差官)을 보내 죄수를 방면토록 하고 어선(御膳)을 감하는 등의 조치로 스스로 경계함.

[세조실록 권46, 세조 14年 5月 28日(정해)]

○ 도승지(都承旨) 권감(權瑊)이 장단(長湍)에서 돌아와 김보(金輔)의 행적을 아킴.

[세조실록 권46, 세조 14年 6月 3日(신묘)]

○ 김보(金輔)가 장단(長湍)에서 돌아오니, 인산군(仁山君) 홍윤성(洪允成)이 <양주> 홍제원(洪濟院)에서 맞이함.

[세조실록 권46, 세조 14年 6月 4日(임진)]

○ 경기관찰사 이훈(李塤)이 승정원(承政院)에 봉서하여 초 3일에 강옥(姜玉)이 홍경천(洪慶川)에 있다가 물이 넘쳐 건너지 못하고 직산(稷山)에 머물렀다고 아킴.

[세조실록 권46, 세조 14年 6月 11日(기해)]

○ 영의정(領議政) 조석문(曹錫文), 풍수학(風水學) 제조(提調) 이파(李坡) 등에게 <광주> 헌릉(獻陵)·<광주> 영릉(英陵)에 가서 봉심(奉審)하게 할 것을 명함.

[세조실록 권46, 세조 14年 6月 17日(을사)]

○ 좌승지(左承旨) 이극증(李克增)을 별선위사(別宣慰使)로 개성부(開城府)에 보냄.

[세조실록 권46, 세조 14年 6月 20日(무신)]

○ 강옥(姜玉)·김보(金輔)가 광주(廣州)에 가서 정선(鄭善)의 묘에 치제함.

[세조실록 권46, 세조 14年 6月 28日(병진)]

○ 김보(金輔)가 장단군수(長湍郡守) 이신희(李愼孝)에게 가직(加職)과 정자구(鄭自周)의 집을 보호해 주기를 청함.

[세조실록 권47, 세조 14年 7月 2日(기미)]

○ 장단군수(長湍郡守) 이신희(李愼孝)를 당상관(堂上官)으로 승진시킴.

[세조실록 권47, 세조 14年 7月 13日(경오)]

○ 모화관(慕華館)에 행행(行幸)하여 강옥(姜玉)과 김보(金輔)를 전송(錢送)하였고, <양주> 홍제원(洪濟院)에 이르러 분예빈사(分禮賓寺)에서 잔치를 베풀.

[세조실록 권47, 세조 14年 7月 26日(계미)]

○ 세자가 신선한 육미(肉味)를 올리려고 경기관찰사에게 사슴을 잡아 올리게 함.

[세조실록 권47, 세조 14年 8月 18日(을사)]

○ 여러 재신(宰臣)들과 경기·황해·강원도에 군적(軍籍)을 만드는 것의 편부를 의논하여 경기만 군적을 만들게 함.

[세조실록 권47, 세조 14年 11月 28日(갑신)]

○ 태상왕(太上王)을 <양주> 광릉(光陵)에 장사지냄.